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고 정 민 교수지도

석사학위 청구논문

영작문을 통한 학습자 오류분석

2008

성신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육학과 영어교육전공

김 은 주

영작문을 통한 학습자 오류분석

고 정 민 교수지도

이 논문을 석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함.

2008년 05월

성신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영어교육전공

김 은 주

인 준 서

김은주의 석사학위 논문으로 인준함.

심사위원 _____인

심사위원 _____인

심사위원 _____인

성신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논 문 개 요

본 연구는 7차 교육과정 하에 학습한 고등학생들이 영어 쓰기 과정에서 어떤 오류를 많이 범하는지 조사하여 표집된 오류의 내용 및 원인을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교육내용 구성에 방향을 제시하는데 기본적인 목적이 있다. 위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우선 문헌 연구를 통하여 학습자 언어 이론과 오류 분석 이론을 고찰하고, 오류의 정의 및 원인에 대한 개념을 살펴 보았다. 둘째, 고등학교 2학년 학생 50명을 대상으로 비교적 간단한 30개의 문항을 영작하게 하여 여기에서 발생한 오류들을 총 11가지 문법 유형으로 분류하고, 각 오류의 원인을 언어 간 전이, 언어 내 전이로 분류하여 분석하였다. 셋째, 전체 영작 문항 중 어휘 및 영어 표현과 관련된 8문항을 추출하여 따로 오류 분석을 실시하였다. 넷째, 현행 7차 교육과정의 학습자와 앞선 6차 교육과정의 학습자의 오류율을 비교하여 시사점을 찾고자 한다.

이러한 본 논문의 구성을 간략하면 다음과 같다. 1장에서는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과 연구의 제한점을, 2장에서는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를 소개하였다. 3장에서는 연구방법에 관하여 서술하고 4장에서는 연구 결과 및 선행 연구와의 비교 분석을 하였다. 연구 결과, 첫째, 총 1,250문항 중 약 80%인 998문항에서 오류가 발견되었다. 문법 항목별 오류 순서를 살펴보면, 동사-준동사-관사-소유격-의문사-형용사-전치사-부사-접속사-어순-명사의 순이었다. 오류의 원인으로는 언어 내 전이가 54%, 언어 간 전이가 46%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영어 학습자들은 모국어뿐만 아니라 영어 구조 자체가 지니는 규칙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많은 오류를 범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익힌 지식을 영어 쓰기에 적절하게 활용하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둘째, 어휘 및 표현상의 오류가 약 50%가까이 나타났다. 이를 통해서 다수의 학습자들이 영어의 어휘 및 표현에 대해 명확히 인식하고 있지 못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셋째, 6, 7차 교육과정의 학습자간 오류를 비교한 결과, 동사 및 관사의 오류율은 7차에서도 여전히 높게 나타났지만 어순의 경우 오류가 감소하였다. 따라서 오류 분석을 토대로 학습자의 현재 수준을 파악하고 그에 따라 정확성 및 유창성을 겸비한 의사소통능력을 길러줄 수 있는 효과적인 교수 방법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목 차

I. 서론	1
1. 연구 목적 및 필요성	1
2. 연구의 제한점	3
II.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4
1. 대조분석이론	4
2. 오류분석이론	6
3. 학습자언어	9
4. 선행연구	10
III. 연구 방법	12
1. 실험대상 및 실험방법	12
IV. 연구 결과	17
1. 문법 항목별 오류분석결과	18
2. 문항별 오류분석	20
3. 오류 원인별 오류분석	46
4. 어휘 및 표현상의 오류분석	52
5. 선행연구와의 비교분석	58

V. 결론 및 제언 61

참고문헌

ABSTRACT

부록

표 목 차

<표 1> 영작 문제에서 사용한 문항과 모범답안	14
<표 2> 전체 문항의 정답 및 오답 수 현황	17
<표 3> 문항별 오답 수 및 오답율 현황	18
<표 4> 문법 항목별 오류 분석 결과표	19
<표 5> 문법 항목별 오류 및 오류 순위	21
<표 6> 영작문항 1	22
<표 7> 영작문항 2	23
<표 8> 영작문항 3	24
<표 9> 영작문항 4	25
<표 10> 영작문항 5	26
<표 11> 영작문항 6	27
<표 12> 영작문항 7	28
<표 13> 영작문항 8	29
<표 14> 영작문항 10	30
<표 15> 영작문항 11	31
<표 16> 영작문항 12	32
<표 17> 영작문항 13	33
<표 18> 영작문항 14	34
<표 19> 영작문항 16	35
<표 20> 영작문항 17	36
<표 21> 영작문항 18	37
<표 22> 영작문항 20	38

<표 2> 영자문항 1	3
<표 4> 영자문항 2	4
<표 5> 영자문항 3	4
<표 6> 영자문항 4	4
<표 7> 영자문항 5	4
<표 8> 영자문항 6	4
<표 9> 영자문항 7	5
<표 10> 영자문항 8	6
<표 31> 언어 내 전이 및 언어 간 전이에 의한 오류 수 및 오류율	47
<표 32> 오류의 원인별 결과 총계	52
<표 33> 어휘 및 표현상 오류 결과	53
<표 34> 오류의 원인에 따른 영어 어휘 및 표현의 분류	57

I. 서론

1. 연구목적 및 필요성

외국어로 의사소통할 수 있는 능력은 현대 사회에서 매우 필수적인 요건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제 6차 교육과정부터 의사소통능력향상에 목표를 두고 영어를 유창하게 말할 수 있도록 하는데 초점을 두었다. 그러나 90년대에 영어의 유창성과 정확성을 모두 강조하는 흐름이 대두되었고, 우리나라 영어교육계에서도 문법교육의 필요성을 인식함에 따라, 7차 교육과정에서는 언어사용의 정확성을 기반으로 한 유창한 의사소통능력배양에 역점을 두고 듣기, 읽기, 말하기, 쓰기의 4가지 능력의 통합적 학습을 강조하여왔다.

그러나 실제 학교 현장에서는 입시위주의 교육 및 교사의 부족 등의 여러 현실적인 요건 때문에 듣기 및 읽기 교육에 치중해 있으며, 쓰기 능력을 신장시키기 위한 수업은 거의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쓰기 능력을 함양하는 활동은 장기간의 계획이 필요하며 언어의 입력만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많은 출력 기회를 통하여 이루어지지만 현재 우리나라 영어 학습자들은 이러한 기회를 제공받지 못하고 있다.

우리나라 학생들의 영작능력의 부재 문제는 지속적으로 지적되어 왔다. 서울대 권오량(權五良·영어교육) 교수와 일본의 조치(上智)대 요시다 켄사쿠 교수 등 한일 공동연구팀이 2003년 9월부터 11월까지 한국, 일본, 중국의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한 영어능력시험 결과 한국 고등학생들의 영어 읽기와 듣기 능력은 중국과 일본 고등학생에 비해 우월하지만 쓰기 능력은 두 나라에 비해 현저히 떨어지는 것으로 밝혀졌다.¹⁾

그런데 최근 TOEIC과 같은 공인 영어능력 인증 시험에서 기존의 이해능력

1) 동아일보 (2004년 3월 14일자)

중심의 시험방식에 말하기 및 쓰기시험을 추가한다고 발표하는 등 쓰기의 중요성이 점차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므로 이와 같은 점을 고려해, 현재 고등학교 영어 학습자들의 영어작문 능력 및 문법에 대한 인식 실태를 점검하고 보다 효과적인 영작문 및 문법 지도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일차적으로 현재 시행중인 7차 교육과정하에서 학습한 고등학교 학생들이 직접 작성한 영작문을 통해, 학습자의 문법 오류를 확인하고 분석함으로써 학습자들이 얼마나 정확하게 영어를 사용하고 있는지의 여부를 밝히는데 본 연구의 기본적인 목적이 있다. 또한, 학습자 오류는 학습자의 언어습득의 단계적이고 발전적인 과정을 반영하는 현상으로 일정한 체계성을 가지므로, 이러한 학습자 오류를 검토함으로써 학습자들이 제 2외국어를 습득할 때 갖게 되는 어려움을 파악하고 학습자가 영어문법을 보다 효과적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시사점을 모색해보고자 한다.

7차 교육과정 하에서 학습한 영어 학습자들의 영작문에 나타난 오류 분석 연구가 기존에 상당히 많이 있으나, 연구 결과에서 조금씩 차이가 있으므로 본 연구를 통하여 도출된 연구결과를 기존의 다른 연구 결과들과 비교하여 연구결과에 차이점이 있는지를 확인해볼 것이다. 또한, 적지 않은 학습자들이 한국어와 영어의 표현상의 차이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한국어의 표현을 그대로 옮겨 영어를 쓰는 표현상의 오류를 많이 범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기존의 학습자 오류 분석 연구 중에 이러한 숙어 및 영어의 관용적 표현 등을 따로 분류하여 다룬 연구가 없었으므로 본 연구에서 다루어보고자 한다.

또한, 7차 교육과정으로 학습한 학습자들의 오류를 연구한 일부 선행 연구들은 오류를 선택함에 있어서 학습자가 보여주고 있는 문장의 전체가 아니라 연구자가 학습자의 작문에서 일부만을 분석 대상으로 삼았다는 제한점을 가진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학습자가 보이는 모든 어휘를 문법 항목

에 따라 분류하여 전체에 대한 오류를 분석하였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2장에서는 본 연구의 이론적 바탕이 되는 오류분석과 선행연구를 소개하고, 3장에서는 연구방법을 기술할 것이다. 4장에서는 학습자의 영작문을 통해 발견되는 오류에 대해 분석하고, 학습자가 어떤 전략을 사용하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6차 교육과정에 의해 학습한 학습자를 대상으로 한 기존의 연구 결과와 본 연구에서 나타난 7차 교육과정에 따른 학습자간의 오류결과를 비교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5장에서는 연구 전체를 요약하고 마무리한다.

2. 연구의 제한점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제한점이 있다.

첫째, 본 연구는 특정 고등학교 2학년 학생을 연구 대상으로 하므로 그 결과를 모든 고등학생에 대해 일반화하는데 한계가 있으며, 제한된 자료의 내용만을 분석한 것이므로 영어에 나타나는 모든 오류를 다루었다고 볼 수 없다.

둘째, 오류의 원인을 언어 내 전이와 언어 간 전이의 두 가지로만 분석하여 다른 요인은 고려하지 않았다는 점과 오류의 유형 및 원인 분류 시 연구자의 주관에 개입될 수 있다는 제한점이 있다.

II. 이론적 배경

본 장에서는 오류분석 이론이 등장하기 전인 1960년 이전까지 응용언어학의 주된 흐름이었던 대조분석 이론에 대해 먼저 살펴보고 1960년대 이후 대조분석에 대한 저항에서 나온 오류분석과 중간언어에 관하여 고찰해보기로 한다.

1. 대조분석이론

대조분석은 1940년대에서 1960년대까지 두 언어를 체계적으로 분석하는데 초점을 둔 응용언어학의 주된 흐름이다. 대조 분석은 학습의 전이를 주장하는 행동주의에 바탕을 두고, 언어가 소리, 음운, 문법 구조들의 집합이라고 주장하는 구조주의 언어학에 근거를 두고 있다. 대조 분석은 구조주의에 입각하여 모든 언어들의 구조를 비교 및 대조하여 그 차이점을 발견한다면 학습자의 외국어 학습상의 어려움을 예측할 수 있고 궁극적으로는 학습을 용이하게 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Fries(1945)는 학습자의 모국어와 비교하여 과학적으로 설명된 목표어의 교재가 가장 효과적인 교재라고 말하고 있다. Lado(1957)에 따르면 모국어와 유사한 구조는 습득이 쉽게 일어나고 모국어와 구조가 다르면 습득하기 어렵다고 하였다. 또한 Weinreich(1953)도 두 언어의 체계 사이의 차이점이 크면 클수록 상호 배타적인 형태가 많고, 따라서 학습에 있어서 어려움과 방해(interference)가 증가한다고 말하였다.

이렇게 언어적 차이가 언어 학습의 어려움을 예측하는데 사용될 수 있다는 신념은 대조분석 가설(Contrastive Analysis Hypothesis : CAH)에 바탕을 둔다. 대조분석가설은 두 언어가 유사하면 긍정적 전이가 발생하고, 두

언어가 차이가 있으면 부정적 전이, 즉 방해(interference)가 발생한다는 가설이다.

Gass & Selinker(2001)은 이러한 대조분석가설의 이론적 가정을 다음과 같이 5가지로 언급하고 있다.

- (1) 언어는 습관이다. 언어 학습은 새로운 습관 형성을 포함한다.
- (2) 제 2 언어의 오류의 주요 원인은 모국어이다.
- (3) 모국어와 제 2언어 사이의 차이점을 고려하면 오류를 설명할 수 있다.
- (4) 언어 간 차이가 클수록 더 많은 오류가 발생한다.
- (5) 제 2언어 학습에서 학습자가 할 일은 유사점이 아니라 차이점을 학습하는 것이다.

이와 같이 모국어와 외국어의 음성적, 음운적, 통사적 구조의 대조 및 분석을 통해 두 언어 사이의 차이점을 발견하고 외국어 학습상의 난점을 예측하고자 한 대조분석은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첫 째는 강한 대조분석(Strong CA)이고 두 번째는 약한 대조분석(Weak CA)이다. 전자는 학습자들의 학습이 이루어지기 전 예측을 통하여, 학습자들의 오류 및 어려움을 설명하는 것을 말하고, 후자는 학습자들의 학습 후에 실제로 발생한 오류를 가지고 오류를 설명하는 것이다.

그런데 학습자가 외국어를 학습하는 과정에서 보이는 오류의 원인을 모국어의 영향으로만 한정하고 그 밖의 요인들, 즉, 학습자의 심리 및 학습상태나 학습자가 미리 학습한 목표언어 자체의 영향 등은 설명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강한 대조분석은 많은 비판을 받게 되었다.

2. 오류분석이론

가. 오류분석의 의의

1960년대 이후 학습자가 제 2언어를 학습하는 것을 두고 학습자를 ‘모국어에 관한 지식뿐만 아니라 목표언어 자체에 대한 지식, 언어 전반에 관한 지식 등 여러 지식을 이용해서 제 2언어의 체계를 구축해가는 창조적인 존재’로 보았고 나아가 이러한 과정에서 발생하는 오류를 불가피하고 자연스러운 것으로 인식하는 흐름이 나타났다. 오류분석은 대조분석과 같이 외국어 학습자가 범하게 될 오류를 예측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범한 오류를 수집하여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분석을 통해 그 원인을 규명하고 학습상의 문제점을 파악하여 그 분석결과를 가지고 학습자의 학습을 촉진시키는데 목적이 있다. 또한, 목표언어를 학습할 때 발생하는 학습자 오류의 원인을 모국어의 간섭의 탓으로만 돌리지 않고 그 밖의 가능한 모든 원인을 분석하려고 하는 점에서 대조 분석과 구별된다.

Gass & Selinker(2001)에 따르면 오류는 목표언어에 대한 학습자의 지식을 반영하는 증거로, 단순히 불완전한 학습의 결과물이 아니라 학습자가 목표언어에 규칙성을 부과하며 목표언어 체계를 이해하려는 시도를 보여주는 증거라고 하며 학습자 오류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Corder(1967)도 학습자 오류는 학습자들이 언어를 발견해 나아갈 때, 어떤 전략이나 절차를 사용하는지에 대한 증거를 연구자에게 제공하기 때문에 중요하다고 지적한다. 또한, Sharma(1981)는 오류분석이 외국어 교사 및 교과서 편찬자들에게 학습자들이 직면하는 어려움을 알려줌으로서 보다 효과적으로 수업시간을 배분하거나 교수방법 교수계획을 수립하는데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다고 하였다.

이와 같이 오류분석은 목표 언어 학습 시, 학습자가 범하는 오류를 분석하여 문제점을 파악할 수 있는 유용한 방법이므로 이를 통해 학습자의 언어

능력을 추정하고 적절한 교수 방법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나. 오류의 정의

‘오류’란 외국어 학습자가 외국어를 학습할 때 보이는 잘못된 수행을 뜻하며 학습자가 외국어 학습 단계에서 보이는 중간언어를 반영하는 증거이다. 학습자의 오류를 정확하게 분석하기 위해서 ‘오류’를 ‘실수’와 엄밀히 구별할 필요가 있다. Corder(1981)에 따르면 실수는 우연한 착오로 발생하여 학습자가 즉시 인식할 수 있고 체계적이지 못하지만, 오류는 말이나 글로 표출되는 과정에서 항상 반복적이고 체계적인 성격을 띤다. Brown(1994)는 언어 수행 과정에서 나타난 잘못으로서 학습자의 수정 능력이 있는 것을 ‘실수’라고 칭하였고, 완전한 성인문법에서 일탈된 것으로서 학습자의 중간 언어 능력이 반영된 것을 ‘오류’라고 하였다.

다. 오류의 원인

학습자의 오류 분석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가 오류의 원인을 밝히는 것이다. 오류의 원인을 밝혀냄으로서 오류에 대한 대응책을 발견하고 나아가 효과적인 언어 학습 지도방안을 모색할 수 있다. 오류의 원인은 학자들마다 매우 다양하게 주장하고 있으므로, 주요 학자들의 견해를 살펴보도록 하겠다.

Richards(1971)는 오류의 원인으로 간섭현상, 과잉 일반화, 언어 수행상의 오류, 과도기적인 언어 능력에서 오는 오류, 의사소통 및 동화를 위한 책략, 교사에 의해 유발된 오류 등 여섯 가지를 제시하였으며, Selinker(1972)는 모국어로부터의 전이, 학습 과정으로부터의 전이, 교재에 대한 학습자의 학습방법, 원어민과의 의사소통에 대한 학습자의 태도, 학습 목표 언어 규칙의 과잉 적용 등 다섯 가지를 언급하였다. 또한, Brown(1987)은 오류의 원인을 모국어의 방해, 목표언어자체, 의사소통의 사

회언어학적 맥락, 심리언어학적, 인지적 전략으로 열거하였다.

이상과 같이 오류의 원인에 대한 학자들의 견해는 매우 다양한데, 크게 모국어의 간섭에 의한 언어 간 오류(interlanguage errors)와 목표언어 내에서의 언어 내 오류(intralinguage errors)로 대별할 수 있다. 언어 간 오류는 대조분석에서 주장하는 모국어의 전이(transfer), 즉 방해(interference)에 의한 오류를 말하는 것으로 모국어와 외국어와의 언어적 차이에 기인하는 것을 말하는데, 학습자가 외국어를 배우는 초기 단계에서는 외국어의 체계가 익숙하지 않으므로 모국어로부터의 전이 현상이 많이 발생한다. Littlewood(1984)는 스페인어를 모국어로 하는 영어학습자나 영어를 모국어로 하는 불어 학습자는 모국어와 목표어의 어순과 기본적인 문법 범주가 유사하므로 비교적 쉽게 목표언어를 학습 할 수 있다고 하였다. 언어 내 오류는 학습자가 자신이 알고 있는 목표언어 규칙의 적용 범위를 확대하여 그 규칙을 일반화시키는데서 발생하는 것으로 이러한 오류는 과잉 일반화(overgeneralization)이라고 하며, 학습자가 목표어의 체계를 어느 정도 습득하고 나면 규칙 확대 현상이 점점 증가한다. 이와 같이 규칙 확대에 의한 오류는 학습자의 언어 습득이 목표언어에 대한 학습자의 가설을 시험하여 학습자의 언어체계를 구성해나아가는 창조적 과정이라는 것을 뒷받침해주는 증거로 볼 수 있다.

라. 오류의 분류

학습자 오류를 분류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인데, 분류하는 사람의 관점이나 목적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그 중 하나는 '언어 범주에 의한 분류법(Linguistic Category Taxonomy)'로 오류를 문법항목을 기준으로 분류하는 문법적 분류방식이다. James(1977)는 오류를 시제, 부정사, 어순, 수일치, 변형, 동사, 형용사, 부사, 관사로 분류하여 제시했다.

Brown(1980)은 오류를 수학적 형태 범주에 따라 첨가(addition), 생략

(omission), 대치(substitution), 재배열(reordering)등으로 분류하였다. Burt와 Kiparsky(1972)에 따르면 오류는 총체적(global)오류와 지엽적(local)오류로 구분될 수 있다. 전자는 의사소통을 방해하는 것으로 청자가 메시지의 일부를 이해할 수 없게 한다. 반면에, 후자는 문장의 한 부분만이 조금 잘못된 것이므로 청자가 메시지를 이해하지 못하는 일은 없다. 마지막으로 Richards(1971)는 언어 학습자의 모국어 간섭에 의한 오류와 학습자의 언어 내적 및 발달과정상의 오류로 구분하고 있다.

3. 학습자언어

학습자 언어 이론은 오류분석이론과 맥락을 같이 한다. 오류 분석의 과정을 통해 학습자들이 완전히 모국어도 아니고 완전히 목표어도 아닌 학습자만의 언어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 밝혀졌다. 학습자 언어란, 학습자가 목표 언어 체계에 도달하기 위해 자신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지식에 근거하여 목표 언어에 대한 가설을 세우고 검증해 가는 과정 중에 있는 학습자 특유의 언어체계를 말한다.

학습자 언어는 학자들에 의해 여러 가지 다른 명칭으로 사용되었는데, Selinker(1972)에 의해 최초로 중간언어(Interlanguage)라는 용어로 명명되었다. 이것은 학습자 언어가 모국어와 목표어 체계의 중간 단계에 속하는 언어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으로 학습자 나름대로 중간단계에서 체계적인 언어체계를 가지고 있는 것을 말한다. Corder(1967)는 학습자 언어를 과도기적 능력(transitional competence)이라고 불렀는데, 이것은 학습자 언어가 항상 변해가는 특성을 가진다는 것을 나타낸다. Corder(1971)는 또한 학습자 언어가 모든 학습자에게 공통으로 나타나는 특성을 모은 언어 체계가 아니라 특정 개개인이 저마다 보여주는 언어적 특성이라는 점에서 학습자 특유의 방언(idiosyncratic dialect)라고 부르기도 했다. Nemser(1971)는 학습자 언어를 근사 체계 언어(approximative system)으로 불렀는데, 이는 학

습자 언어가 항상 불완전한 상태에서 목표어의 완전한 상태로 발달해 가는 것을 나타낸다. Ellis(1985)의 주장은 이 모든 견해를 포함한다. Ellis(1985)에 따르면, 학습자의 중간 언어는 고정된 것이 아니라 새로운 내용이 첨가되거나 기존의 지식이 수정되는 등 계속 변화하며 개인별, 상황적인 변이형이 나타나기도 하지만 전체적으로는 규칙의 지배를 받는 체계적인 특성을 띤다.

4. 선행연구

학습자의 영어 작문을 통한 오류분석 연구는 그동안 많은 관심을 가지고 꾸준히 이루어져 왔다. 우선 6차 교육과정의 학습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를 살펴보도록 하겠다. 김미정(2001)의 연구는 본 연구와 마찬가지로 고등학교 2학년을 대상으로 총 25문항의 영어를 작문하도록 한 후 그로부터 도출된 결과를 분석하였다. 또한 오류를 문법항목별로 분류하고 오류의 원인을 언어내적인 측면과 언어 간 간섭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분류는 ‘명사’, ‘동사’, ‘관사’, ‘형용사’, ‘전치사’, ‘소유격’, ‘어순’, ‘부사’, to부정사 및 동명사를 포함하는 ‘준동사’ 등 9개의 문법항목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연구 결과, 총 4,864개의 항목 중 오답이 전체의 34%를 차지했다. 그 중 동사 51%, 관사 44%, 어순 44%, 부사 36%, 전치사 24%, 준동사 21%, 명사 20%, 소유격 16%, 형용사 14%의 오류율이 발생하였다. 오류의 원인별 결과에서는 총 오류 1,642개 중 언어 간 전이에 의한 오류는 35.7%, 언어 내 전이에 의한 오류는 60.6%로 나타났다.

7차 교육과정의 학습자를 대상으로 한 이정민(2007)의 연구는 고등학교 2학년을 대상으로 하였다. 오류의 원인별 분류는 본 연구와 동일하였으나, 문법항목별 분류에 있어서 본 연구와 다르게 접속사와 의문사 항목은 포함되지 않았다. 연구 결과, 총 항목 수 14,900개 가운데에 오답은 8,705개로 58%가 나타났으며, 명사 48%, 동사 67%, 부사 69%, 관사 70%, 전치사 66%,

형용사 59%, 소유격 43%, 어순 53%, 준동사 72%의 오류가 나타났다. 오류의 원인에 따른 분석을 보면, 언어 내 전이가 57.67%, 언어 간 전이가 42.33%로 언어 내 전이가 더 큰 비율을 보였다.

III. 연구방법

본 실험의 기본적인 목적은 고등학교 영어 학습자들이 영어 작문을 수행하도록 한 후, 그 결과물을 수집하여 작문에 나타난 오류를 분석하고 체계적으로 기술함으로써 고등학교 학생들의 영어 작문 실태를 살펴봄과 동시에 학생들이 어떤 부분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지를 세부적으로 파악하여 학생들을 효과적으로 지도할 수 있는 기반을 세우기 위함이다.

본 장에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분석한다. 우선, 영어 작문에 나타난 학습자들의 전체 문장 오류를 분석하고 이로부터 문법 항목별 오류율을 산출한다. 둘째, 이를 기반으로 영어 쓰기에 나타난 오류의 발생 원인을 모국어 간섭에 의한 언어 간 전이와 목표 언어 자체의 복잡성에 의한 언어 내 전이로 구분하여 학습자들이 어떤 원인에 더 영향을 많이 받는지를 살펴본다. 셋째, 전체 문항 중에서 숙어 및 관용적인 표현에 해당되는 문항들을 추출하여 오류 분석을 실시하여 학습자의 영어 표현에 대한 인식 실태를 살펴본다. 넷째, 기존의 연구와 연구결과를 비교하여본다.

1. 실험 대상 및 실험 방법

본 연구에는 경기도 평촌 시 소재의 P고등학교 2학년 학생 50명이 참여하였다. 실험에 참가한 학생들은 7차 교육과정에 의해 영어를 배워온 학습자들로 P고등학교는 평준화 고등학교이다. 본 연구는 영어를 표현할 때 학습상의 문제점을 파악하기 위하여 오류의 빈도 및 오류의 일반적 경향을 알아보기 위한 것이므로 학생 개인의 학력 수준에 대한 평가는 고려하지 않았다.

본 연구는 실험에 참가한 P고등학교 학생 50명에게 우리말로 된 30개의

문항을 영어로 작성하도록 한 후 결과물을 수집하여 여기서 나타난 학습자들의 오류를 분석하였다. 단, 본래 30 문항에 대한 모든 오류를 분석하고자 하였으나 문법 항목의 중복되는 5 문항을 제외한 25 문항만을 분석대상으로 삼았다. 영작문항의 선정은 채점의 신뢰도를 높이고자 7차 교육과정의 중학교 및 고등학교 영어 교과서 5종 및 중학교와 고등학교 영어과 교육과정 해설서에 나온 문장을 추출하여 그대로 사용하거나 약간의 수정을 가하여 사용하였으며, 가급적 10단어 내의 비교적 짧은 문장으로 선정하여 학생들이 교육과정에서 제시하고 있는 수준의 의사소통 기능을 할 수 있는지의 여부에 초점을 두었다. 영작문항은 학생들의 영작을 모범답안으로 유도하기 위해 가급적 직역하여 학생들에게 제시되었으며 연구자에 의한 주관성을 최대한 배제하기 위해 기존의 여러 오류 분석을 참고하여 영작 문항에 대한 오류 분석이 이루어졌다.

본 연구에서는 피실험자들의 오류를 문법항목별 분류하고 오류 원인별 분류에 따라 나누어 분석하였다. 문법항목은 전체 문장에 나타나는 모든 문법항목을 대상으로 하며, James(1977)의 오류분류를 참고하여 동사, 명사, 형용사, 부사, 전치사, 소유격, 준동사¹⁾ 접속사, 관사, 어순, 의문사 등 총 11가지로 분류하였다. 또한, Brown(1994)의 오류 형태별 분류 기준을 참고하여 재배열, 대치, 생략, 첨가를 기본으로 하되 학습자들의 영작문에서 나타나는 기타의 기준을 추가하여 이를 토대로 오류를 기술하였다. 이외에도 오류의 원인별 분석을 위해서 Richards(1971)가 제시한 오류방법을 토대로 언어 간 오류(전이)와 언어 내 오류(규칙 확대) 2가지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오류 판단에 있어 본 논문의 보다 구체적인 오류 분석을 위해 박지영(2006)이 제시한 다음 사항을 참고하여 오류를 판단하도록 하겠다.

1) 준동사는 동명사, to부정사 및 분사를 포함하는 항목이다.

- (1) 한국어의 어순은 주어-목적어-동사이고 영어는 주어-동사-목적어순이다.
 - (2) 한국어의 동사에는 인칭과 수를 표시하지 않으며 영어에는 인칭과 수를 표시한다.
 - (3) 한국어 명사에는 복수를 표시하지 않으며 영어에는 보통명사에 복수 형태로서 -s(-es)를 붙인다.
 - (4) 한국어에는 관사가 없으며 영어에는 관사가 있다.
 - (5) 한국어는 형용사 역할을 하는 것이 수식어 앞에 오지만 영어는 뒤에 오는 경우가 많다.
 - (6) 한국어의 복문에서는 종속절이 주절 앞에 오지만 영어는 뒤에 오는 경우가 많다.
 - (7) 한국어는 서술문과 의문문의 어순이 같고 영어는 서술문과 의문문의 어순이 다르다.
- 실험에 사용된 문항과 각 문항별 점검 대상 항목은 다음과 같다.

<표 1> 영작 문제에서 사용한 문항과 모범답안

영작문항		모범답안
1	그는 매일 산책을 한다.	He takes a walk everyday.
2	나는 그녀를 오랫동안 알아왔다.	I have known her for a long time.
3	너는 학교에 어떻게 왔니??	How did you come to school??
4	그녀는 아팠던 것이 틀림없어.	She must have been sick.
5	나는 그 아이들이 노래하는 것을 들었다.	I heard the children sing.
6	우리는 수영장에서 수영하는 것을 즐긴다.	We enjoy swimming in the pool.
7	그 빌딩은 1880년도에 지어졌다.	That (The) building was built in

		1880.
8	우리는 음식을 많이 사지 않았다.	We didn't buy much food.
10	내가 우리 가족에서 제일 크다.	I am the tallest in my family.
11	나는 그녀만큼 빨리 달릴 수 있다.	I can run as fast as she.
12	이것은 내가 어제 산 그 책이다.	This is the book I bought yesterday.
13	나는 그가 어디 사는지 모른다.	I don't know where she lives.
14	나에게 피자 만드는 법을 말해줘.	Tell me how to make a pizza.
16	그가 나에게 선물을 주었다.	He gave me a present.
17	그 지붕은 눈으로 덮여 있다.	The roof is covered with snow.
18	나는 어제 죽어가는 호랑이 한 마리를 보았다.	I saw a dying tiger yesterday.
20	나 머리 잘랐어.	I had my hair cut.
21	그는 항상 학교에 늦게 온다.	He always comes late to school.
22	그는 행복해 보인다.	He looks happy.
23	그는 나를 보러 왔다.	He came to see me.
24	나는 그가 미국에서 왔다는 것을 몰랐다.	I didn't know (that) he had come/ came from America.
25	그 테이블의 다리들은 길다.	The legs of the table are long.
26	나 마실 차가운 것 좀 주세요.	Please give me something cold to drink.
27	그는 그 방으로 들어갔다.	He entered the room.
28	나는 18살 소녀이다.	I am an 18-year-old girl.

수집된 자료의 처리는 다음과 같이 하였다. 첫째, 한 문장에서 틀린 곳이 여러 곳일 경우 모두 오답처리 하여 결과에 반영하였다. 둘째, 답안을 전혀 작성하지 않거나 한 두 단어의 나열로 끝나는 것은 모두 무답으로 처리하여 오답으로 편성시켰다. 셋째, 연구자가 작성한 모범 답 외에 문법적으로 올바른 문장일지라도 학생들에게 제시한 문장과는 다소 차이가 있거나, 연구자가 의도한 문법 범주에서 탈락된 성분이 있어 오류를 기술하기에 어려움이 있는 답안은 무답으로 처리하였다.

넷째, 문법 항목별 오류율을 산출하였고, 원인별 분류는 목표 언어의 구사에서 모국어 요소가 포함되거나 목표 언어에 대한 지식 부족으로 모국어

요소를 차용한 경우는 언어 간 전이로, 학습자가 알고 있는 목표언어의 규칙을 확대하여 일반화시킨 경우에 나타난 오류는 언어 내 전이로 편성시켰다.

IV. 연구 결과

조사한 문항을 분석한 결과, 전체 문항의 정답 및 오답수의 현황은 다음과 같다.

<표 2> 전체 문항의 정답 및 오답 수 현황

비율	구분 총 문항수	정답수	오답수	
			오답	무답
	1,250	252	816	182
백분율	100%	20.16%	65.28%	14.56%

<표 2>에 나와 있는 것처럼 총 1,250문항 중 20.16%인 252문항이 정답이었고, 79.84%에 해당하는 998문항이 오답으로 나타났다. 이 중 무답을 제외한 816문항만을 오류 분석 대상으로 하였다. 다음의 <표 3>은 문항별로 오답수와 오답율을 나타낸 것이다. 오답율이 높은 영작 문항은 진하게 표기하였다.

<표 3> 문항별 오답 수 및 오답율 현황

구분 문항	오답수/ 총문항수	오답율(%)	문항	오답수/ 총문항수	오답율(%)
1	40/50	80%	16	41/50	82%
2	39/50	78%	17	37/50	74%
3	40/50	80%	18	46/50	92%
4	39/50	78%	20	50/50	100%

5	38/50	76%	21	48/50	96%
6	28/50	56%	22	28/50	56%
7	34/50	68%	23	35/50	70%
8	38/50	76%	24	44/50	88%
10	41/50	82%	25	49/50	98%
11	36/50	72%	26	43/50	86%
12	34/50	68%	27	42/50	84%
13	32/50	64%	28	49/50	98%
14	47/50	94%	계	998/1250	100%

1. 문법 항목별 오류 분석 결과

다음은 50명의 학생들의 영작문을 통해 나타나는 오류를 분석하여 문항별 및 문법항목별로 나타낸 표이다. 문법항목은 명사, 동사, 형용사, 관사, 부사, 전치사, 접속사, 어순, 소유격, 준동사, 의문사 등 11개의 항목으로 분류하였다. 모든 문법 항목의 총 개수는 6200개이며, 그 중 정답은 3,806개로 전체 항목의 61%를, 오답은 2,394개로 39%를 차지했다. 기재된 수치는 무답과 오답의 개수를 합한 총 오류수이다.

<표 4> 문법 항목별 오류 분석 결과표

번호	문항	문법 항목별 오류수										
		명사	동사	형용사	관사	부사	전치사	접속사	어순	소유격	준동사	의문사
1	He takes a walk everyday.	27	39		31	13			10			
2	I have known her for a long time.	12	33	10	24		24		8			
3	How did you come to school??	4	39				16		21			5

4	She must have been sick.		45	15					13			
5	I heard the children sing.	12	18		16				14		15	
6	We enjoy swimming in the pool.	8	8		19		7		4		18	
7	That (The) building was built in 1880.	4	27		8		22		6			
8	We didn't buy much food.	9	27	28					21			
10	I am the tallest in my family.	11	16	19	35		18		13	14		
11	I can run as fast as she.		27			12			15			
12	This is the book I bought yesterday.	5 15	20		27	5		15	11			
13	I don't know where she lives.		30						10			8
14	Tell me how to make a pizza.	10	15		44				13		23	19
16	He gave me a present.	5	30		28				8			
17	The roof is covered with snow.	22	31		13		22		0			
18	I saw a dying tiger yesterday.	21	23	34	43	28			23			
20	I had my hair cut.	9	48						10	25	46	
21	He always comes late to school.	5	42			13	20		29			
22	He looks happy.		25	2					3			
23	He came to see me.		30						20		28	
24	I didn't know (that) he came from America.	15	36				22	13	12			
25	The legs of the table are long.	23	32	13	47				8	41		
26	Please give me something cold to drink.	31	22	20					20		38	
27	He entered the room.	6	35		25				5			
28	I am a 18-year-old girl.	13	11	37	38				10			

다음은 각 문법항목별 오류 및 오류 순위를 나타낸 결과표이다.

<표 5> 문법항목별 오류 및 오류 순위

문법 항목	총 문법항목 수	오답수	항목별 오류율	전체오류에서 차지하는 비율	오류순위
명사	1150	267	23%	5%	11
동사	1250	682	55%	13%	1
형용사	450	178	40%	9%	6
관사	750	398	53%	12%	3
부사	250	71	28.4%	6%	8
전치사	400	151	38%	8%	7
접속사	100	28	28%	6%	9
어순	1250	307	25%	5%	10
소유격	150	80	53%	12%	4
준동사	300	168	56%	13%	2
의문사	150	64	43%	10%	5
계	6,200	2,386	440	100	

* 총 문법 항목수는 문법항목수와 전체 학생 수의 곱.

문법 항목을 James(1977)의 오류 분류 기준을 참고하여 명사, 동사, 형용사, 관사, 부사, 전치사, 접속사, 어순, 소유격, 준동사, 의문사의 11가지 항목으로 분류하고 학습자들의 영작문을 통한 문법 항목별 오류 분석을 실시한 결과, 오류가 가장 많이 발생한 것은 동사의 오류로서 55%의 오류율을 보였다. 다음으로 오류율의 순위는 준동사, 관사, 소유격, 의문사, 형용사, 전치사, 부사, 접속사, 어순, 명사의 순으로 나타났다.

2. 문항별 오류 분석

아래에서는 각 문항별로 오류 분석 결과를 상세히 기술하였다. Brown(1980)의 오류 형태별 유형 분류기준을 토대로 각 항목에 해당하는 오

류를 나타내는 형태에 따라 적합한 오류의 유형을 연구자가 임의로 분류하여 분석하였다.

<표 6> 영작문항 1

문항 1	He takes a walk everyday. He goes (out) for a walk everyday.				
문법항목별 오답율	동사	명사	관사	부사	어순
	33%	23%	26%	10%	8%
오답내용	He take a walk everyday. He is take walk everyday. He walked everyday. He walks everyday.				

*()안의 수치는 오류수를 나타냄.

문항 1에서는 ‘take a walk’ 라는 표현적 어휘에 대한 학생들의 인식부족으로 동사의 오류가 가장 많이 나타났다. 동사의 오류 유형을 살펴보면 ‘walked(1)’ 와 같은 시제의 오류, ‘is take a walk’ 와 같은 be동사 첨가의 오류가 나타난다. 특히, ‘walks(5)’ 와 같이 동사 ‘walk’를 사용한 오류가 많이 나타났다. 그 밖에, 일부 학습자들은 ‘take(5) a walk’ 와 같이 주어와 동사의 수일치를 시키지 않고 쓰는 오류를 보였고 ‘is go mountain walk’ 등과 같은 어휘로 대치하는 전략을 사용하는 것이 발견되었다. 동사와 더불어 관사와 명사에 대해서도 오류율이 높았다. 관사의 경우, 전체 응답의 절반 이상인 52%가 관사를 생략하였고, 명사의 경우 생략의 오류가 40% 나타났다. 부사의 경우, 잘못된 부사로 대치한 오류가 부사 오류의 75%를 차지하였고, 생략의 오류가 25%를 이루었다. 빈도부사의 위치

오류는 부사의 재배열 오류에 포함시키지 않고 어순의 오류에 첨가하였다.

<표 7> 영작문항 2

문항 2	I have known her for a long time.					
문법항목별	명사	동사	형용사	관사	전치사	어순
오답율	10%	30%	9%	22%	22%	7%
오답내용	I know she a long time. I was knowing her long time. I have been known her for a long time. I have been known for a long time her. I am long time know she.					

문항 2에서는 동사의 오류가 가장 많이 나타난다. 동사의 오류 유형을 살펴보면, ‘know(12)’, ‘knew(3)’ 와 같은 시제의 오류가 51%로 절반 이상을 차지하였다. 동사를 ‘have been known(3)’ 등과 같이 수동형으로 잘못 나타낸 태의 오류와 ‘was knowing’ 과 같이 쓴 형태의 오류도 발견되었다. 또한 ‘have known’ 대신에 의미적으로 유사한 ‘see’를 사용하여 ‘have seen’ 으로 대치하여 쓴 경우도 발견되었다. 이와 같은 동사의 오류를 통해 많은 학습자들이 현재완료 구문에 대해 명확히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이러한 오류는 학습자들의 목표어 자체에 대한 인식의 부족을 그 원인으로 들 수 있다. 두 번째로 오류율이 높은 항목은 전치사와 관사이다.

우선 전치사는, 전치사 ‘for’ 를 생략(19)한 오류가 대부분을 차지했고, ‘-동안’ 의 의미를 가지는 전치사로 사용되지 않고 다른 의미로 사용되는 경우(1)도 나타났다. 관사의 오류 유형의 경우, 관사 a를 생략하는 오류(19)만 나타났다. 그 밖에, 어순의 오류 유형을 살펴보면, 시간 부사구가

문장 사이에 잘못 위치하거나, 우리말 어순대로 영어 단어를 나열하는 오류 및 기타(1)의 어순 오류가 발생하였다.

<표 8> 영작문항 3

문항 3	How did you come to school?				
문법항목별	명사	동사	전치사	어순	의문사
오류율	4%	45%	18%	24%	5%
오답내용	How do you come to school? How are you come school? How to go to school? You school how come?				

문항 3의 오류율은 80%로, 특히 동사의 오류가 45%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do come' 같은 동사의 시제 오류가 9개, 조동사를 생략한 답안이 6개, 조동사를 'did'를 다른 조동사 'could' 및 'can' 로 대체하여 사용한 경우가 2개, 동사를 go등으로 대체하여 쓴 경우가 4개에 달하였으며 아예 동사를 생략한 경우도 7개에 달하였다. 'are coming' 등 형태의 오류와 come앞에 be동사를 첨가하는 오류(2)도 나타났다.

전치사를 생략하는 오류(12)도 보였다. 두 번째로 오류율이 높은 항목은 어순(24%)이다. 어순에서는 학습자가 의문문의 어법적 구조를 인식하지 못하고 우리말 어순대로 영어단어를 단순히 나열하거나 일관성 없이 나열하는 재배열의 오류가 대부분(65%)을 이루었고, 'How to go to school?' 과 같이 의문사 + to부정사 구문을 사용하여 문장처럼 쓴 경우도(30%) 나타났다.

<표 9> 영작문항 4

문항 4	She must have been sick/ill.		
문법항목별	동사	형용사	어순
오답율	61%	20%	18%
오답내용	She must be sick. She must have sicked. She might be sick. She must had been sick. She was must sick.		

문항 4에서는, 동사가 가장 높은 비율(61%)을 차지한다. 문항 4의 동사의 오류 중에서 조동사의 오류는 17%, 일반 동사의 오류는 83%로 나타났다. 조동사 ‘must’ 대신에 ‘might’ 와 같이 다른 조동사로 대치하거나, ‘she was sick exactly’ 와 같은 문장에서처럼 조동사를 사용하지 않는 대신 학습자 자신이 알고 있는 ‘exactly’라는 부사를 사용해서 주어진 문장의 의미와 유사하게 만들고자 한 또 다른 대치의 오류가 나타났다. 조동사를 아예 생략하는 경우도 보인다(1). 또한, 조동사를 바르게 썼을지라도 조동사 뒤의 일반동사를 현재완료형으로 쓰지 못하고 다른 형태로 쓴 오류들이 발견되었는데, 이는 목표어 자체의 규칙에 대한 인식 부족에서 오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조동사 ‘must’ 가 단순히 be동사와 결합할 경우와, 현재완료 형태와 결합할 경우에 나타나는 의미의 차이에 대해 인식하지 못하고 ‘must be’로 쓴 오류도 나타났다. 그 밖에 ‘must had been’, ‘must had to’ 등과 같은 오류도 발견되었는데, 이는 학습자가 ‘must + 현재완료’의 문법적 형태를 알고 있지 못한 상태에서, 주어진 문장의 의미를 표현하기 위해 동사 및 조동사의 시제를 학습자가 재구성한 대치의 오류로 볼 수 있다.

‘She must ill’ 과 같이 동사를 아예 생략한 경우(7)도 나타났다. 특히, ‘She must have sicked(3)’ 과 같은 문장에서는 일부 학습자들이 형용사 ‘sick’ 을 동사로 인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으며, ‘She must have been pain.’ 과 같이 형용사 sick을 명사 pain으로 대치시킨 학습자도 있었다.

문항 4는 비교적 단순한 2형식 평서문이므로 어순의 오류(3)는 많이 발견되지 않았지만, 조동사 뒤에 문법적으로 동사원형이 위치한다는 어순에 대한 인식이 확립되지 않아 조동사 앞뒤에 was, did를 쓴 경우가 나타났다.

<표 10> 영작문항 5

문항 5	I heard the children singing.				
문법항목	명사	동사	관사	어순	준동사 (분사)
별 오답율	16%	24%	21%	18%	20%
오답내용	I am heard children singing. I listen the children sing a song. I heared that the children was singing. I listened that children sang a song. I'm that children sing heard.				

문항 5에서는 동사(24%)의 오류율이 가장 높은데, 동사의 오류를 크게 시제, 태, 첨가 오류로 나눌 수 있다. 일부 학습자들은 동사를 ‘am heard(3)’ 와 같이 수동태로 표현하거나, 시제를 잘못 사용하여 ‘listen(2)’ 과 같이 사용하기도 했다. 또한, 동사 ‘hear’ 와는 달리 문법적으로 ‘listen’ 뒤에 전치사 to가 함께 쓰인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listened(1)’ 만을 쓰거나, hear가 불규칙변화 동사라는 것을 알지 못하

고 ‘-ed’ 를 붙여서 ‘heard’ 라고 표현한 학습자도 있었다. 일부 학습자는 관사를 생략(6)하였는데 이는 우리말에 관사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나타나는 모국어의 영향으로 보인다.

복수명사인 ‘children’ 대신 단수명사인 ‘child’ 를 사용한 경우(2)도 나타났다. 또한 목적보어 위치에 분사대신, ‘sang(2)’ 과 같이 과거동사를 쓰거나, be동사와 함께 사용하는 것을 발견하였다. 위의 둘은 목표어 자체에 대한 규칙의 인식 부족으로 추측할 수 있다. 어순의 경우, 우리말 어순대로 영어단어를 배열한 문장(2)이 나타났다.

<표 11> 영작문항 6

문항 6	We enjoy swimming in the (swimming) pool.					
	We like swimming in the (swimming) pool.					
문법항목별	명사	동사	관사	전치사	어순	준동사 (동명사)
오답율	12%	12%	30%	11%	6%	28%
오답내용	We are enjoy swimming at the poor. We are funny swimming. We enjoyed swim in the pool. We enjoy to swim in the swimming pool. We swimming pool swim enjoy. We in swimming pool swim enjoy					

문항 6에서는 관사의 오류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대부분이 관사 생략(18)에서 비롯된 오류로, ‘pool’ 이나 ‘swimming pool’ 은 가산 명사이기 때문에 관사를 붙여줘야 하지만 36%의 학생이 관사를 생략함으로써 관사의 문법적 쓰임에 대해 명확히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으며, 이러

한 관사 오류는 모국어에 의한 언어 간 전이로 볼 수 있다.

두 번째로 오류율이 높은 항목은 준동사로 본 문항에서 살펴볼 준동사는 동명사다. 동명사 오류(17)는 ‘swim(7)’, ‘to swim(2)’ 등과 같이 다양한 형태의 오류(17)를 보이고 있다. 이는 ‘enjoy’ 라는 동사 뒤에는 동명사가 위치해야 하는 목표언어 자체에 대한 규칙의 인식부족이 오류의 원인이다. 세 번째로 명사와 동사가 오류율이 높게 나타났다. 명사(7)는 ‘poor, fool’ 과 같이 단어의 철자를 잘못 쓰거나, 아예 단어 자체를 몰라 생략(4)하는 오답이 나타났다. 동사는 ‘enjoyed(3)’ 와 같은 시제의 오류, ‘are like’, ‘are enjoy(2)’ 와 같은 be동사 첨가 오류가 나타났으며, ‘enjoy’ 라는 단어를 몰라서 학습자가 알고 있는 비슷한 의미를 가지는 ‘funny’ 라는 형용사로 대치(1)하는 학습자 전략이 발견되었다. 어순의 경우 우리말 어순대로 단어를 배열한 오류(2)와 장소 수식어구의 위치가 잘못 되어 발생한 오류가 발견되었다.

<표 12> 영작문항 7

문항 7	The building was built in 1880.				
문법항목별	명사	동사	관사	전치사	어순
오답율	6%	40%	12%	32%	9%
오답내용	This building is build 1880. The building built in 1880s. The building was build at 1880. That building 1880 year make.				

문항 7에서는 동사의 오류율이 가장 높았다. 태의 오류(15)가 가장 높았는데 특히 ‘built’라고 쓴 오답이 많았다. 이는 수동태가 be동사 + 과거분

사 형태를 이룬다는 것을 명확하게 인식하지 못하는데서 기인하는 오류로서, 모국어의 간섭의 영향에 의한 것이다. 또한, ‘is built’ 와 같이 현재형 be동사를 사용한 오류(5)도 발견되었다. 두 번째로 오류율이 높은 것은 전치사로, ‘by(2)’, ‘since(3)’, ‘at(9)’, ‘for(1)’, ‘in(5)’ 과 같이 다양한 전치사로의 대치하거나 생략(3)한 오류가 발견되었다. 오답 처리된 ‘in(5)’ 의 경우 ‘the’ 를 생략하고 ‘in 1880's’ 라고 적은 것이므로 오답처리 하였다. 그 밖에, 관사 대신에 지시 형용사 ‘this’ 를 쓴 오답(4)이 발견되었다.

<표 13> 영작문항 8

문항 8	We didn't buy much food.			
문법 항목별	명사	동사	형용사	어순
오답율	10%	31%	33%	24%
오답내용	We aren't buy much food. We don't buy many food. We don't many buy food.			

문항 8을 통해서 비교적 많은 학습자들이 수량형용사를 올바르게 사용하고 있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형용사 오류 형태를 살펴보면, ‘much’ 대신에 ‘many’ 로 대치(17)하거나 생략 혹은 빈칸으로 남겨두기(2), ‘a much of(1)’를 사용한 것을 볼 수 있다. 특히, ‘many’를 사용한 학습자가 많았는데 이는 수량형용사와 가산/불가산 명사와의 연대적 쓰임에 대해 올바르게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고 추측할 수 있다. 또한, 수량 형용사의 문법적 위치가 잘못된 재배열의 오류가 나타나는데, 이는 수량형용사가 명사의 앞에서 명사를 수식해주는 문법적 쓰임을 가지는 것에 대한 인식 부족에 기인한다. 수량 형용사의 재배열 오류에 관해서는 ‘어순’ 에서 다루도록 하

겠다.

두 번째로 동사의 오류율이 높았다. ‘don't buy(8)’ 와 같이 현재시제로 표현한 시제의 오류가 가장 많이 나타났으며, 조동사 ‘did’를 사용하지 않고 단순히 일반 동사 ‘buy’ 앞에 부정어만을 붙여서 사용한 오류도 있었다. 그 밖에, ‘doesn't buy(1)’ 와 같이 주어인 ‘we’ 와의 수일치 오류가 나타났다. ‘aren't buy(3)’ 라고 쓴 오답도 발견되었는데, 일반 동사 앞에 조동사를 사용하여 과거시제를 표현하지 않고 be동사를 사용한 것으로 보아 일부 학습자들이 일반 동사의 조동사인 ‘do’동사의 쓰임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그 다음으로 수량형용사를 문법적으로 올바르게 않은 위치에 넣어 어순의 오류(13)가 나타났다. 명사를 잘못 쓴 것은 무답을 제외하고 불가산명사인 ‘food’ 에 ‘-s’를 붙여 복수명사처럼 사용한 오류가 하나 있는데, 이는 목표에 자체에 대한 규칙인식부족으로 인한 오류에 해당된다.

<표 14> 영작문항 10

문항 10	I am the tallest in my family.						
문법항목	명사	동사	형용사	관사	전치사	어순	소유격
별 오답율	8%	12%	15%	27%	14%	10%	11%
오답내용	I'm tallest in my family. I'm biggest in my family. I am we family very big.						

문항 10의 오류에서는, “내가 우리 가족에서 제일 크다.” 라는 표현을 표면적으로 직역하여 주어인 ‘I’와 집합명사인 ‘family’ 를 비교 처리한 오류가 많이 나타났다. 본 문항에서는 관사의 오류가 27%로 가장 높게 나타났는데, 부사의 최상급을 쓰는 경우, ‘the + -est’ 형태를 사용하는데,

형용사인 ‘tall’에 정관사 ‘the’를 생략(26)하고 ‘-est’만 붙여서 사용하는 경우가 많았다. 두 번째로 형용사의 오류율이 높다. 형용사의 오류 유형을 보면 ‘biggest(3)’ 과 같이 유사한 의미를 가지는 어휘로 대치, ‘a tall(2)’ 과 같이 관사 첨가 및 ‘tall(3)’, ‘big(2)’ 과 같이 원급형태로 표현한 오류가 있다. 일부 학습자들이 형용사인 ‘tall’ 앞에 관사 ‘a’ 를 붙인 것으로 보아 일부 학습자들이 문법 항목, 즉 품사에 관한 규칙을 정확히 인식하지 못하고 품사에 관계없이 a를 붙이고 보는 목표어의 규칙 확대 오류를 범하는 것을 볼 수 있다.

동사는 생략의 오류(7) 및 ‘was(1)’ 와 같은 시제의 오류가 나타났으며, 전치사는 생략(8)의 오류만 나타났다. 어순의 경우, 우리말 어순대로 단어를 나열하거나 비문법적인 어순으로 나열한 어순의 오류(4)가 발견되었다.

<표 15> 영작문항 11

문항 11	I can run as fast as she.		
문법항목	동사	부사	어순
별 오답율	50%	22%	27%
오답내용	I am run fast as she as. I run fast as well as she. I can run as fast as she does. I can as run as her.		

문항 11에서는 동사의 오답율이 50%를 차지한다. 오류의 형태로는, 조동사 ‘can’ 을 생략하고 동사원형인 ‘run만 쓰거나(14), ‘ran’, ‘running’ 등 문장에 적합하지 않은 동사(2)만 사용한 오류 및 동사 ‘run’ 앞에 be동사를 첨가한 오류(3)가 발견된다. 동등비교를 나타내는 as...as의 형태에서 전치사 as뒤에 ‘주격 +동사’ 를 사용하여 표현한 문장

(16) 중, 조동사 ‘can’ 대신 ‘does’, ‘is’가 발견되었다. 이를 통해 학생들이 동등비교를 나타내는 문법적 형태인 ‘as 형용사/부사 as’의 쓰임에 관해서 인식하고는 있지만 보다 정확한 쓰임을 알고 있는 학생들의 수는 많지가 않음을 알 수 있다.

두 번째로 오류율이 높은 항목은 다음과 같은 어순(8)의 오류로, 동등 비교를 표현하기 위한 as...as 사이에 ‘she’ 혹은 동사 ‘run’을 넣어서 나타낸 경우가 어순 오류 문항의 대부분에서 나타났다. 이로 보아, 학습자들은 동등비교를 표현하는 ‘as...as’에 대해서는 인식하고 있으나 정확한 용법을 파악하지 못한 것을 알 수 있다. 그 밖에, 부사를 생략(1)하거나, 부사를 잘 못 사용하는 경우(5)도 나타난다.

<표 16> 영작문항 12

문항 12	This is the book (that) I bought yesterday.					
문법항목별	명사	동사	관사	부사	접속사	어순
오답율	20%	20%	28%	5%	15%	11%
오답내용	This is a my book that buy was yesterday. This is a book which I bought yesterday. It was the book that I bought yesterday. This is book that I was bought yesterday. It is I yesterday buy that book. This is book yesterday I bought.					

문항 12에서는 (정)관사의 오류율이 가장 높게 나타난다. 오류 유형을 살펴보면, 정관사 ‘the’를 생략(16)하거나, ‘a’, ‘my’, ‘that’과 같이 다른 어휘로 대치(8)하는 오류가 나타났다. 문항 12에서 관사의 오류는 전체 50개 문항의 절반을 차지하는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는 모

국어 전이의 영향이 크다. 그 뒤를 이어 명사와 동사의 오류율이 높는데, 동사의 오류는 크게 be동사의 오류와 일반동사의 오류로 분류할 수 있다. be동사의 오류는 생략(2)과 시제의 오류(1)가 나타났는데, 후자는 규칙의 과잉 적용을 원인으로 볼 수 있다. 일반 동사의 오류로는 ‘buy(8)’와 같이 시제의 오류와 ‘is bought ’ 등과 같은 태의 오류(5)가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 오답율이 높은 항목은 접속사(관계사)인데, 접속사의 오류는 생략 및 다른 접속사로의 대치 형태로 나타났다. 어순의 오류는 우리말 어순대로 영어 단어를 나열(1)하거나, 부사를 잘못된 위치에 넣은 오류(1)가 발견되었다. 또한, 관사, 소유격을 동시에 나열한 오류가 발견되었는데 이것은 목표언어의 규칙이 확대 적용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 밖에, 부사의 오류는 yesterday앞에 시간을 나타내는 시간관계부사인 when을 첨가한 첨가의 오류(1)가 나타났다.

<표 17> 영작문항 13

문항 13	I don't know where she lives.		
문법항목	동사	어순	의문사
별 오답율	62%	21%	16%
오답내용	I am not knowing where he lives. I don't know where he live. I don't know he where living. I don't know where does he lives. I don't know where he lives in.		

문항 13에서는 동사의 오류율이 62%로 가장 높다. 문항 13이 복문이므로 주절 동사와 종속절 동사를 모두 고려하였다. 먼저 주절 동사의 오류 유형을 살펴보면, ‘didn't know’와 같은 시제의 오류(1)와 조동사 ‘don't’

대신에 be동사를 사용하는 대치의 오류(2)가 나타난다. 이는 일반 동사의 부정문을 만들기 위해 조동사 'do'를 사용하는 목표언어 자체의 규칙에 대한 일부 학습자의 인식부족으로 보인다. 종속절 동사의 오류 유형으로는 'live(11)' 과 같이 주어 he와 일치되지 않은 동사의 수일치 오류, 'lived(3)' 와 같은 시제 일치 오류, 생략(3), live in(2), lived in(1)과 같은 불필요한 전치사 첨가의 오류, is live(1)와 같은 be동사 첨가의 오류, does lives(1)과 같은 불필요한 조동사 첨가의 오류 및 living과 같은 형태오류가 나타난다.

어순의 경우, '의문사, 주어, 동사' 순서대로 나열되는 간접의문문의 어순에 대한 인식이 없어서, 우리말 어순대로 나열하거나 완전히 비문법적인 어순으로 나열하는 오류가 나타났으며(7) 그 밖에, I don't know he lived와 같이 의문사 where를 생략한 오류(5)가 발견되었다.

<표 18> 영작문항 14

문항 14	Tell me how to make a pizza.					
문법항목	명사	동사	관사	어순	준동사	의문사
별 오답율	8%	12%	35%	10%	18%	15%
오답내용	Tell me how make pizza. Tell me how cooking pizza. Tell me the how to make the pizza. How to make pizza tell me.					

문항 14에서는 관사의 오류율이 가장 높게 나타난다. 'pizza'가 가산명사인데도 관사를 아예 생략(32)하고 'make pizza' 라고만 쓴 경우가 대다수를 차지했고, 정관사 the를 사용한 오류(2)도 발견되었다. 전자의 경우는 모국어의 영향에 기인한 것이고, 후자와 같이 'the'를 사용하는 것은 정관

사 'the'의 정확한 쓰임에 대해 인식하지 못하고 습관적으로 명사 앞에 붙여 사용하는 일부 학습자들의 습관을 보여주는 것이다. 준동사의 오류 유형을 살펴보면, 'make(9)'와 같이 'to'를 생략하고 원형부정사 형태로 사용하는 오류가 가장 많고, 그 밖에 '-ing'를 첨가한 오류(3) 및 생략(1)의 오류가 나타났다. 그 밖에, 의문사는 'how'앞에 정관사 'the'를 첨가한 오류(2), 의문사 생략(6)의 오류 및 의미상 'how'를 생략하고 전치사 'about'으로 대치한 오류(1)'가 보인다. 동사의 오류에 있어서는 전치사 'to'와 함께 사용하는 'talk(3)'를 전치사를 생략하고 쓴 오류 및 기타(2)가 나타났고, 어순의 경우, 영어 문장의 형식 및 구조에 대한 인식의 부족으로 우리말 어순대로 영어단어를 나열하거나 비문법적인 어순을 사용한 오류(3)가 발견되었다.

<표 19> 영작문항 16

문항 16	He gave me a present.			
	He gave a present to me.			
문법 항목 별	명사	동사	관사	어순
오답율	7%	42%	39%	11%
오답내용	He gives me gift. He was gave me the present. He me present give. He give me present.			

본 문항에서 가장 오류율이 높은 항목은 동사로, 그 오류유형을 살펴보면, 시제의 오류(19), 생략(2)의 오류, be동사 첨가의 오류(2), 태의 오류(1), 기타(2)가 나타난다. 두 번째로 오류율이 높은 항목은 관사로, 관사를 생략한 오류(20)가 대부분이고, 정관사 'the'를 사용한 오류(5)도 발견되었

다. 그 밖에, 명사 'present/gift'를 생략한 오류(4)가 발견되었으며, 어순의 오류(5)를 통해서 일부 학습자들이 아직 3형식 및 4형식에 대해 잘 인식하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3형식으로 표현하여 전치사를 사용한 13개의 문장 중에서 전치사 'to'대신에 'for'를 사용한 오답은 38%인 5개에 해당하였다.

<표 20> 영작문항 17

문항 17	The roof is covered with snow.				
문법항목별	명사	동사	관사	전치사	어순
오답율	25%	35%	14%	25%	0%
오답내용	The roof was covered with snow. The roof covered by snow. The 지붕 is covered with snow. The roof is cover with snow.				

문항 17에서 동사의 오류 유형을 살펴보면, 시제의 오류(15)가 많이 나타났는데 특히, 'was covered'라고 쓴 답안이 많았고, 태의 오류(4)도 나타났다. 전치사는 생략의 오류가 50%, 'by', 'in' 과 같은 다른 전치사로의 대치가 나머지 50%로 나타났다. 명사의 경우, 'roof' 대신 'roop' 등 음성적으로 유사한 다른 단어로 대치하여 쓰거나, 우리말로 '지붕' 이라고 쓴 대치의 오류가 명사 오류의 80%를 차지했고, snow 앞에 정관사 'the' 를 첨가한 오류가 20% 발견되었다.

본 명사의 오류에서는 학생들이 지붕을 뜻하는 단어 'roof'의 음성적 자질을 인식하고 있지만 그 정확한 어휘를 모를 때나 혹은 아예 그 어휘를 모를 때, 학습자 나름대로의 전략을 사용하여 문장을 기술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것은 학습자 언어, 즉 완전한 목표어 체계로 나아가는 발달 단계의

중간언어를 보여주는 것인데, 학습자의 어휘에 대한 쓰기 전략은 Hemmati(2001)가 분류하고 있는 것처럼, 크게 목표언어를 다른 말로 대치함으로써 학습자가 이미 가지고 있는 언어적 지식을 사용하는 전략인 성취전략(Achievement Strategies)과 모르는 어휘를 아예 생략해 버리는 축소전략(Reduction Strategies)으로 분류할 수 있다.²⁾ 문항 17에서 뿐만 아니라 다른 문항의 오류 사항에 있어서 이러한 학습자 전략을 확인할 수 있다.

<표 21> 영작문항 18

문항 18	I saw a dying tiger yesterday.					
문법항목별	명사	동사	형용사	관사	부사	어순
오답율	12%	13%	20%	25%	16%	13%
오답내용	I am saw that died tiger. I saw dying tiger in yesterday. I saw go to die tiger yesterday. Yesterday, I saw 죽어가는 tiger. I yesterday watched to died tiger.					

문항 18의 오류율은 92%로 매우 높았다. 관사의 오류가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는데, 정관사 ‘the(4)’ 및 ‘that(1)’ 으로 쓴 오류가 22%, 관사를 아예 생략(17)한 경우가 78%로 나타났다. 두 번째로 오류율이 높은 항목은 형용사로 매우 다양한 형태의 오답이 발견되었다. 생략(3)과 더불어 ‘died(5)’, ‘dead’, ‘죽어가는’, ‘die’, ‘go to die’ 라고 쓴 오류가 나타났는데, 이 오류를 통해, 학습자들이 동사 ‘die’ 와 형용사 ‘dead’ 를 잘 구분하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으며, 또한 한글로 ‘죽어가는’ 이라고 적거나 ‘go to die’ 와 같이 세 단어를 연결해서 형용사처

2) 이정민, op. cit . pp. 19-20 에서 재인용.

럼 만들어 사용하는 학습자 전략도 발견되었다.

부사의 경우, 무답을 제외한 오답 중에서 생략(6)이 85%를 나타내었으며, 부사 ‘yesterday’ 앞에 전치사 in을 첨가한 첨가의 오류(1)가 15%를 차지하였다. 동사의 경우, ‘saw’를 생략하고 ‘am’을 쓴 오류(1) 및 ‘watched to’와 같이 불필요한 전치사를 첨가한 오류(1)가 발견되었다. 어순에 있어서는 부사의 어순 위치 오류 및 주어와 수식어구의 위치 오류가 발견되었다.

<표 22> 영작문항 20

문항 20	I had my hair cut.				
문법항목별	명사	동사	어순	소유격	준동사
오답율	6%	34%	7%	18%	33%
오답내용	I cut my hair. I hair cut. I am cutted hair. I' cutting my hair. I have a cut my hair.				

문항 20은 오답률이 100%에 달했으며, 특히 동사 및 준동사의 오류가 67%를 차지했다. 동사의 경우, cut(27)이라고 쓴 오답이 많았고, 태의 오류(2) 및 생략(2)의 오류가 나타났다. 또한, ‘have(6)’와 같은 시제의 오류와 더불어 기타 동사형태의 오류가 발견되었다. 본 문항에서는 준동사 가운데, 학습자들의 과거분사 사용에 관해 살피고자 하는 것인데, 본 문항에서 올바르게 ‘cut’을 과거분사 형태로 사용한 예는 8%에 불과했다.

소유격의 경우, 인칭대명사의 소유격을 생략(19)한 경우가 대부분을 차지하였는데, 이는 우리말에서 소유격을 생략해서 사용하는 경향에 기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소유격 대신 정관사 the(2)를 사용한 오류도 발견되었다. 명사의 경우, head(4)와 같이 잘못된 어휘를 쓰거나 생략(1)하는 오류가 발견되었다.

<표 23> 영작문항 21

문항 21	He always comes late to school.				
	He is always late for school.				
문법항목	명사	동사	부사	전치사	어순
별오답율	4%	38%	12%	18%	26%
오답내용	He always late for school. He always school late come. He is always lately come to school. He is always be late at school. He late for school always.				

문항 21의 오류율은 96%로 매우 높다. 그 중 동사의 오류가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데, 생략(22)의 오류가 57%로 가장 많이 나타나며, ‘come(10)’ 과 같은 주어와 동사의 수일치 오류가 26%, 그 밖에 시제의 오류(2), 동사대치의 오류(2), be동사 첨가의 오류(2)가 나타났다. 두 번째로 오류율이 높은 항목은 어순이다. 부사 및 빈도부사의 위치 오류는 부사 오류에 포함시키지 않고 어순의 오류에 포함시켰다. 본 문항에서 나타나는 어순의 오류 유형을 살펴보면, 부사 late의 위치 오류(4)가 16%, 우리말 어순대로 영어를 나열한 오류(3)가 12%, 빈도부사의 위치 오류가 나머지를 차지하고 있다.

부사의 경우, 빈도부사의 오류는 무답을 제외하고 발견되지 않았으나, 시간 부사로 사용된 'late'는 ‘lately(2)’ 등과 같이 잘못된 형태의 오류 및

생략(2)이 발견되었다. 이는 학습자가 영어에서 부사를 만들기 위해서는 '-ly'를 형용사에 덧붙여야 한다는 규칙을 과대 적용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He is always late for school.'의 형태로 문장을 쓰려고 한 26문장 중 23문장에서 be동사를 생략하여 표면적으로 마치 부사인 'late'를 동사처럼 사용하는 오류도 나타났다.

<표 24> 영작문항 22

문항 22	He looks happy. He seems happy.		
문법항목별	동사	형용사	어순
오답율	83%	6%	10%
오답내용	He was look so happy. He seemed happy. He looks like happy. He see happy. He is look so happy. He is saw happy. He looks be happy.		

문항 22에서는 동사의 오류율이 83%로 눈에 띄게 높았다. 태의 오류가 16%, 시체의 오류가 20%, 'looks like(4)'와 같이 전치사를 첨가한 오류가 40%로 나타났으며, 그 밖에 동사 생략(2) 및 'see(2)' 등의 기타 오류가 나타났다. 특히, 'look like'와 같이 전치사를 첨가한 오류의 비율이 높은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는 학습자들이 'look like' 다음에 어법적으로 명사구가 위치한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불완전자동사 look과 똑같은 쓰임으로 잘못 인식해 왔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동사의 오류 유형은 모국어 전이의 영향 보다는 목표언어 자체의 규칙에 대한 인식 부족에 원인이

있다. 어순의 경우, 우리말 어순대로 나열한 어순의 오류가 나타났고, 형용사는 형용사 앞에 be동사를 첨가(1)하거나, 관사 'a'를 첨가한 오류(1)가 발견되었다.

<표 25> 영작문항 23

문항 23	He came to see me.		
문법 항목별	동사	어순	준동사
오답율	38%	25%	35%
오답내용	He come to see me. He is comes for look me. He I look came. He come because see me.		

문항 23에서는 동사의 오류가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그 오류 유형을 살펴보면 ‘come’ 같은 시제의 오류(9), ‘went’ 등의 대치 오류(3) 및 기타 오류(2)가 나타난다. 본 문항에서 준동사의 오류는 35%로 나타났다. 오답 중, 전치사 ‘for’가 ‘~을 위해’라는 의미를 가지는 것을 사용해 주어진 문장의 의미를 구성하고자 했지만 for 뒤에 동명사 형태가 아닌 과거동사 및 현재동사를 사용하여 ‘saw’, ‘look’이라고 쓴 오답도 나타났다(2). 또한 원인을 나타내는 접속사 because를 사용해 표현한 답도 한 개 발견되었다. 그 외, to부정사를 아예 생략하고 ‘look at’, ‘see’ 등의 원형부정사만 사용한 경우가 대부분을 차지했다. 어순의 경우 우리말 어순대로 나열한 오류(2) 및 비문법적 어순 오류(2)가 나타났다.

<표 26> 영작문항 26

문항 24	I didn't know (that) he came from America.				
문법항목별	명사	동사	전치사	접속사	어순
오답율	15%	36%	22%	13%	12%
오답내용	I don't know he came from America. I am he came from U.S.A don't know. I don't know he come back from U.S. I don't know he was came to America. I don't know where he is from. I don't know he America come.				

문항 24에서는 동사의 오류가 가장 높게 나왔다. 문장에서 발견되는 모든 동사의 오류 유형을 살펴보기 위해 주절과 종속절 동사 모두에 대해 오류 분석을 실시하였다. 주절의 동사의 경우, ‘don't know(32)’ 라고 쓴 시제의 오류가 대부분을 차지했다. 종속절에 사용된 동사의 경우, 시제의 오류(54%)가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으며, 잘못된 어휘의 사용 오류(13%) 및 ‘coming(2)’ 과 같은 동사형태의 오류가 나타났다. 전치사의 경우, 생략이 46%, ‘to(3)’, ‘at.(3)’, ‘by’, ‘in’ 등의 다른 전치사로 대치한 오류가 53%를 차지했다. 명사의 경우, 앞에 the가 붙어야 하는 U.S.을 the를 생략하고 쓴 오류(6), 생략(1) 및 미국의 영어 단어를 몰라서 우리말로 ‘미국’ 이라고 적은 학습자전략 등이 발견되었다.

접속사는 생략의 오류만 발견되었는데, ‘I don't know What he come from America.’ 이라는 문장에서는 접속사 that이 생략되어있지만, 학습자가 '-한 것'이라는 의미를 가지는 관계대명사 what의 쓰임을 이용하여 주어진 문제지의 문항의 의미를 최대한 표현하기 위한 나름의 성취 전략을 사

용한 것을 볼 수 있다. 그 밖에, 우리말 어순대로 나열한 오류(3) 및 주어 및 동사의 위치 오류(2)등이 발견되었다.

<표 27> 영작문항 25

문항 25	The legs of the table are long.					
문법항목별	명사	동사	형용사	관사	어순	소유격
오답율	14%	19%	8%	28%	4%	25%
오답내용	The table's leg is long. The legs of the table are tall. The legs of table is long. That table's legs are long.					

문항 25에서는 관사의 오류가 가장 많이 나타났다. 본 문항에서는 정관사 the를 두 개 모두 써야지 정답으로 인정하였다. 그 결과, 관사를 하나만 쓴 경우는 62%, 관사 대신 ‘this’ 등의 지시사만을 쓴 경우는 32%의 비율을 보였으며, 관사 생략의 오류가 나머지를 차지했다. 소유격의 오류율이 두 번째로 높는데, 인칭소유격처럼 ‘-s’를 사용하여 표현한 대치의 오류가 59% 발견되었다. 이는 무생물 주어의 소유격과 같이 확장된 규칙을 잘 인지하지 못하고 비교적 영어 학습의 초기에 다루어지는 인칭대명사 소유격의 형태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소유격에 대한 표현 없이 단어만 나열한 생략의 오류(table legs/legs)가 41%의 비율을 보였다.

동사의 경우, 수일치의 오류가 68%, 동사를 아예 생략한 경우가 20%를 나타냈다. 또한, 'was, were'과 같은 시제 오류도 각각 1개씩 발견되었다. 명사는 ‘legs’에서 ‘-s’를 생략하는 오류(14)가 가장 많이 나타났으며, ‘table’은 ‘-s’를 첨가한 오류(1)가 하나 발견되었다.

<표 28> 영작문항 28

문항 26	Please give me something cold to drink.				
문법항목	명사	동사	형용사	어순	준동사
별 오답율	23%	16%	15%	15%	29%
오답내용	Would you give me cold something drink. Give me some drink so cool. Give me a something to drink. Give me cold something to drink.				

문항 26에서는 준동사 (to 부정사)의 오류율이 가장 높게 나타나는데, 생략의 오류가 95%로 대부분을 차지하였으며, ‘to drink’ 를 ‘to eat’ 으로 대치하여 쓴 오류도 발견되었다. 두 번째로 오류율이 높은 항목은 명사이다. 본 문항에서는 ‘something’ 을 명사로 취급하여 오류 분석을 하였다. 그 결과, ‘something’ 을 사용하지 않고 ‘a cold drink’ , ‘a cold water’ 와 같이 다른 명사로 대치하여 사용하는 경우(13)와 something앞에 ‘the’를 첨가하는 오류(2)가 발견되었다. 동사의 경우, 모두 생략에 의한 오류가 나타났으며, 형용사는 cold와 cool을 모두 정답으로 인정하였는데, 무답을 제외하고 모두 생략의 오류(4)가 나타났다.

그 밖에, ‘cold something’과 같은 어순의 오류를 통해 일부 학습자들이, 형용사가 ‘-thing’으로 끝나는 명사 뒤에 위치해서 앞의 명사를 수식해주는 어순에 관한 목표언어 규칙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29> 영작문항 27

문항 27	He entered the room.			
문법항목	명사	동사	관사	어순
별 오답율	8%	49%	35%	7%
오답내용	He is enter the room. He enter the room. He entered in the room. He came in the room. He is room in go away. He entered to the room. He goes into room.			

문항 27에서는 동사의 오류가 50%를 가까이를 차지하고 있다. 동사의 오류 유형에 관해 살펴보면, ‘enter’의 시제오류(8)가 나타내는데, 이 가운데서 ‘is entered’와 같이 be동사를 첨가한 오류가 3개 발견되었다. 또한, enter 뒤에 ‘to’, ‘in’과 같은 불필요한 전치사를 첨가한 오류가(3) 나타났다. 그 밖에, 동사의 사용에 관하여 연구자가 원래 의도한 동사 ‘enter’ 대신에 ‘go’를 사용하여 표현한 문장이 학습자가 쓴 전체 문장 중 34%에서 나타난다. 이 중 ‘went into’라고 쓴 것은 정답으로 인정하였다. 두 번째로 오류율이 높은 항목은 관사이다. 관사의 경우, 생략(16)의 오류가 76%로 가장 많이 보였고, 관사 ‘a’(1) 및 소유격 ‘his’(4)로 대체하여 쓴 오류도 발견되었다. 그 밖에, 명사를 생략한 오류(2) 및 우리말 어순대로 나열한 어순의 오류가 발견되었다.

<표 30> 영작문항 28

문항 28	I am an 18-year-old girl.				
문법 항목별	명사	동사	형용사	관사	어순
오답율	12%	10	34%	34%	9%
오답내용	I am 18 years old girl. I am 18 year old girl. I am 18 girl. I am a 18 age girl.				

문항 28은 98%의 높은 오답율을 보인다. 특히, 형용사와 관사의 오류율이 높다. 형용사의 경우, '18 years old(11)' 라고 쓴 오류가 40%로 가장 많이 나타났고, '18(4)' 이나 '18 years(4)' 라고 쓴 오류가 28%로 뒤를 이었다. 그 밖에, '18 year's old', '18 year(2)', '18 age', '18th', 'years old 18' 과 같은 오류도 발견되었다. 관사의 오류를 살펴보면, 관사 'a'를 생략한 경우(58%)가 많았는데, 이는 모국어 전이에 의한 습관적 생략으로 보이지만, '18-year-old'가 한 단어처럼 모여서 뒤의 명사인 'girl'을 한정적으로 수식해주는 형용사로 쓰이는 표현이라는 것을 정확히 인식하지 못한 것이 원인이 될 수도 있다. 또한, 'I am 18 years old girl.' 에서와 같이 관사 'an'를 생략하고 숫자 '18' 이 복수라는 인식에 year에 '-s'를 붙여 명사처럼 사용한 학생이 형용사 오답자의 22%를 차지했다. 명사의 경우, 생략(2), 철자실수(1) 및 boy와 같이 잘못된 어휘 대치의 오류(1)가 발견되었으며, 동사는 생략(2)의 오류만 나타났다.

3. 원인별 오류 분석

위의 결과를 토대로 학습자의 영작에서 발견된 오류를 오류의 원인에 따라 Richards(1971)가 제시한 기준에 의거하여 언어내의 전이 즉, 목표언어 자체 규칙의 인식 부족에서 생기는 오류와 언어 간 전이 즉, 모국어의 간섭에 의한 오류로 나누어서 분류하였다. 일부 연구는 문법 항목별로 오류의 원인을 미리 구별하여 정해놓고 그 기준에 맞추어 분석하였지만, 같은 문법 항목이라고 해도 나타나는 오류 형태에 따라 언어 간 전이인지 모국어 내 전이인지의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본 연구에서는 문항에서 나타나는 모든 오류형태를 대상으로 원인 분석을 실시하였다. 다음은 각 문법 항목에서 발견되는 오류 유형을 언어 내 전이와 언어간전이의 오류 원인에 따라 분류하여 나타낸 결과이다. 오류 형태에 따른 오류율은 언어 내 전이와 언어 간 전이 각각의 오류수에 의거하여 산출하였다.

<표 31> 언어 내 전이 및 언어 간 전이에 의한 오류 수 및 오류율

(무답은 제외하고 오류수를 산정하였으며, 높은 오류율 항목은 진하게 표시하였다.)

(1) 동사

언어 내 전이				언어 간 전이			
오류형태	문항번호	오류수	오류율	오류형태	문항번호	오류수	오류율
시제	1~8,12,1 3,16,17, 20,21,22,	167	22.56%	대치	1,2,13,14 ,23,26	47	7.27%
be동사 첨가	1,5,6,13,1 6,21,24,2 7	20	2.7%	태	2, 7, 12, 16, 17, 20, 22	42	6.5%
수일치	1,8,13,21, 24,25	56	7.56%				
기타	1~4,6,8,1 1,13,16,2 0,22,23,2	96	12.97%				

	4,27						
생략	2,3,4,6,10 ,12,13,16, 18,20,21, 22,26,28	78	10.54%				
총계		417	56.33%	총계		89	13.77%

동사의 경우, 시제, be동사 첨가, 수일치, 생략, 대치, 태 및 기타의 7가지로 분류하여 오류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시제의 오류 비율이 가장 높은 것을 볼 수 있다. 그 밖에 생략의 오류도 높은 비율을 보였다. 동사의 언어 내 전이의 비율이 56.33%로 매우 높게 나타남을 볼 수 있다.

(2) 명사

언어 내 전이				언어 간 전이			
오류형태	문항번호	오류수	오류율	오류형태	문항번호	오류수	오류율
복수어미	8, 25,	17	2.29%	생략	1, 2, 10	26	4.02%
				대치	2	11	1.7%
총계		17	2.29%	총계		37	5.72%

명사의 오류를 복수어미, 생략, 대치로 분류하여 분석한 결과, 명사에서 생략의 오류가 가장 많이 발생하였다.

(3) 어순

언어 내 전이				언어 간 전이			
오류형태	문항번호	오류수	오류율	오류형태	문항번호	오류수	오류율
의문문	3	17	2.29%	서술어 및 수식어	1, 2, 4~8, 10, 11, 12, 14, 16, 18,	108	16.7%
간접 의문문	13	7	0.94%				

					20,21,22,23, 24,26		
총계		24	3.23%			108	16.7%

어순의 경우, 언어 간 전이에서 오류율이 16.7%로 높게 나타났다. 어순 분석 결과, 다수의 학습자들이 서술어와 수식어의 위치를 혼돈하여 올바르게 사용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우리말의 영향으로 인해 잘 모르는 경우는 아는 단어를 우리말의 의미에 따라 배열하는 오류가 많이 발견되었다.

(4) 형용사

언어 내 전이				언어 간 전이			
오류형태	문항번호	오류수	오류율	오류형태	문항번호	오류수	오류율
대치	4, 8, 10, 18, 28	57	7.7%	재배열	28	1	0.15%
생략	18, 26, 2,	11	1.48%				
첨가 및 기타	10, 18, 22	12	1.62%				
총계		80	10.8%	총계		1	0.15%

형용사 오류는 크게 수량 형용사의 쓰임 오류, 형용사의 최상급 오류, 서술적 및 수식 형용사의 오류로 분류할 수 있다. 우리말에서는 형용사가 명사 앞에서 수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영작에서 나타나는 배열상의 오류는 언어 간 간섭의 오류이고, 그 외에는 언어 내 오류로 분류할 수 있다.

분석 결과, 다른 어휘로 대치한 오류가 가장 많이 나타났으며 언어 내 전이가 10.8%로 높게 나타났다.

(5) 준동사

언어 내 전이				언어 간 전이			
오류형태	문항번호	오류수	오류율	오류형태	문항번호	오류수	오류율
분사	5, 20	47	6.3%	TO부정사	14, 23, 26	29	4.48%
동명사	6	17	2.29%				
총계		64	8.59%	총계		29	4.48%

(6) 전치사

언어 내 전이				언어 간 전이			
오류형태	문항번호	오류수	오류율	오류형태	문항번호	오류수	오류율
대치	7, 17, 24	28	3.78%	생략	2, 3, 6, 7, 10, 17, 21, 24,	78	12%
총계		28	3.78%	총계		78	12%

전치사의 경우 다른 전치사를 쓴 경우는 언어내의 규칙을 모르는 데서 기인한 것으로 보고, 전치사를 생략한 경우는 우리말에 해당하는 전치사의 개념이 없기 때문인 것으로 보아 언어 간의 오류로 분류하였다. 분석결과, 생략의 오류가 많이 발생하였다.

(7) 부사

언어 내 전이				언어 간 전이			
오류형태	문항번호	오류수	오류율	오류형태	문항번호	오류수	오류율
대치	21	5	0.67%	생략	1, 11, 18	9	1.39%
재배열	11	4	0.54%				
첨가	18	1	0.13%				
총계		10	1.34%	총계		9	1.39%

(8) 관사

언어 내 전이				언어 간 전이			
오류형태	문항번호	오류수	오류율	오류형태	문항번호	오류수	오류율
대치	12,16, 18, 25, 27	35	4.72%	생략	1, 2, 5, 6, 10, 12, 14, 16, 18, 25, 27, 28	269	41.64%
총계		35	4.72%			269	41.64%

관사의 경우, 다른 단어로 대치하거나 생략하는 오류형태가 나타났는데, 그 중 생략의 오류가 41.64%로 많이 발생하였으며, 이는 언어 간 전이에 그 원인이 있다.

(9) 소유격

언어 내 전이				언어 간 전이			
오류형태	문항번호	오류수	오류율	오류형태	문항번호	오류수	오류율
무생물 주어의 소유격	25	34	4.59%	인칭 대명사의 소유격	10, 20	26	4.02%
총계		34	4.59%			26	4.02%

(10) 접속사

언어 내 전이			
오류형태	문항번호	오류수	오류율
생략 및 대치	12, 24	17	2.29%
총계		17	2.29%

(11) 의문사

언어 내 전이			
오류형태	문항번호	오류수	오류율
생략	13, 14	14	1.89%
총계		14	1.89%

<표 32> 오류의 원인별 결과 총계

구분 \ 오류원인	언어 내 전이	언어 간 전이	총 오류수
오류수	740	646	1,386
비율(%)	54%	46%	100%

분석 결과, 위와 같이 오류의 원인은 언어 내 전이가 54%, 언어 간 전이에 의한 오류가 46%로 모국어의 간섭보다는 학습자의 목표언어 자체의 규칙에 대한 인식 부족의 영향이 좀 더 큰 것으로 밝혀졌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서 학습자들이 영어 자체의 문법 규칙 및 어휘에 대해 명확하게 인식하지 못하고 있으며, 우리말과 영어의 표현상의 차이를 제대로 인지하여 올바르게 사용하고 있지 못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언어 내 전이와 언어 간 전이 각각에서 높은 오류율을 보이는 문법 항목을 살펴보면 언어 내 전이에서는 동사와 더불어 동명사, to부정사, 분사 등의 준동사 및 형용사의 오류율이 두드러지는데, 이것은 학습자들이 동사 및 준동사와 같이 다소 복잡한 규칙이 사용되는 문법항목의 규칙을 올바르게 인식하고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낸다. 한편, 언어 간 간섭에서는 우리말에서 쓰이지 않는 관사의 생략오류가 41.64%로 가장 많이 나타났다.

문법 항목별 오류 유형을 살펴보면, 동사의 오류유형은 특히 다양하게 나

타나 학습자들이 동사의 사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으며 특히, 시제에의 오류가 많이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문법 항목 별 오류 형태는 생략, 첨가, 대치, 재배열 등 다양하게 나타나지만 언어 내 전이와 언어 간 전이를 통틀어 생략의 오류가 가장 많이 일어나는 것을 통해서 학습자들이 축소전략을 많이 사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4. 어휘 및 표현상의 오류 분석

연구자는 평상시 학생들이 어법의 구조적인 측면에서 뿐만 아니라 영어 표현을 사용하는데 있어서 적지 않은 오류를 범하는 것을 발견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오류가 높을 것이라 예상하고, 본 연구에서 영어의 어휘 및 표현상의 오류도 함께 다루어 보도록 하였다. 분석에 사용된 문항들은 어휘와 표현의 문항으로 따로 구분하지 않았으며, 앞서 오류를 분석한 문항 가운데에서 어법의 구조적 측면보다는 숙어 및 관용적인 표현이 포함된 문항을 선정하여 분석하였다. 다음의 표는 어휘 및 표현상 오류 분석 결과를 나타낸 것이다.

<표 33 > 어휘 및 표현상 오류 결과

문항번호	정답수	오답수		오답율
		오답	무답	
1	11	34	5	78%
2	17	29	4	66%
	26	20	4	48%
3	35	11	4	30%
8	21	21	8	56%
17	28	10	12	44%
20	2	44	4	96%

	41	5	4	18%
25	37	6	7	26%
27	42	4	4	16%
계	260/500	184	56	48%

분석 결과, 어휘 및 표현상의 오류가 약 50%로 나타났다. 오류 분석을 통하여 학습자가 영어 어휘와 표현에 대해 명확하게 인식하고 있는지를 알아보고자한 관계 문항 가운데에 거의 절반에 이르는 학습자들이 영어 어휘 쓰임에 대해 정확히 모르고 있거나, 어휘실력이 부족한 상태에서 불충분하게 알고 있는 영어 어휘를 우리말 의미에 아무렇게나 적용하여 사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우리말과 영어간의 표현방식의 차이를 인식하지 못하고 우리말의 표현 관습대로 영어를 표현하고 있으며, 이미 알고 있는 구문에서 유추하여 적합하지 못한 구문까지 적용하는 경우도 나타났다. 다음은 이러한 오류의 예이다.

문항 1. He takes a walk everyday.

- * He is go mountain walk.
- * He doing walk.
- * He is walking.
- * He is hiking.

문항 1에서 보이는 이와 같은 오류는 학습자가 영어로 ‘산책하다’라는 의미를 표현하기 위해서 ‘take a walk’ 혹은 ‘go out for a walk’ 등과 같은 관용적인 영어 표현이 사용되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나타나는 오류로서, 오류의 유형을 살펴보면 학습자 자신이 나름대로 가진 언어 지식을 사용하여 의미를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문항 1에서 ‘take a walk’ 라는 표현을 사용한 경우는 전체의 32%를 차

지했고, ‘take a walk’ 라는 표현 이외에 같은 의미를 가지는 ‘take a stroll’ , ‘go walks’ , ‘go (out) for a walk’ 등의 표현도 10% 나타났지만, 결과적으로 절반 이상의 학생들이 ‘산책하다’를 나타내는 표현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문항 2. I have known her for a long time.

* I was knowing her long time.

문항 2에서 보이는 오류는 ‘know’ 가 ‘believe’ 나 ‘suppose’ 등의 인식 동사에 속하므로 진행형으로 사용하지 못하는 것을 학습자가 모르는데서 기인하는 오류로, 우리말식대로 ‘-알아왔다, 알고 있었다’ 라고 표현하기 위해 과거 진행형으로 쓴 것으로 보인다. 또한, 영어로 ‘오랫동안’ 의 의미를 표현하기 위해 ‘for a long time’ 이라는 관용적인 표현이 사용되는 것을 모르고 ‘long time’ 이라고만 쓴 오류가 많이 발견되었다.

문항 3. How did you come to school?

* How are you go to school?

* How went to the school?

문항 3에서 나타난 오류는 학생들이 동사 ‘come’ 과 ‘go’ 의 미세한 의미상의 차이를 모르거나 크게 신경 쓰지 않는데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고등학교 학생들이 ‘come’ 과 ‘go’ 라는 기초적인 단어를 알지 못하는데서 이러한 오류가 발생한다고 설명하는 것은 다소 설득력이 떨어진다. ‘come’ 과 ‘go’ 라는 단어는 모두 ‘-에 도착하다’ 라는 의미를 내포하는데, 학생들은 발화자가 발화 시 해당 장소에 있을 때 ‘come’ 이라는 동사를 사용하는 것이며, 발화자가 해당 장소에 없을 때, 동사 ‘go’ 를 사용한

다는 단어내의 미세한 언어적 지식을 인지하지 못하거나 신경 쓰지 않아서 이러한 오류가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문항 8. We didn't buy much food.

- * We didn't buy many food.
- * We buy no many food.
- * We didn't buy many foods.

문항 8에서는 학습자들이 의미와는 상관없이 학습상의 훈련에 의해 습관적으로 ‘많다’ 라는 뜻으로 ‘much’ 대신 ‘many’를 사용한 것으로 보이며, 명사 ‘food’는 불가산명사 이므로 수량 형용사에서 much의 수식을 받는다는 규칙의 인식 부족에 오류의 원인이 있다고 보인다. 또한, food가 불가산명사라는 것을 알지 못하고 불가산 명사인 food에 ‘-s’를 첨가하여 복수명사처럼 쓴 오류도 발견되었다.

문항 17. The roof is covered with snow.

- * The roof is covered by snow.

문항 17에서 무답을 포함한 전치사 오류 비율은 44%로 절반에 가까운 학습자가 'be covered'와 함께 쓰이는 전치사 'with'의 쓰임에 오류를 보였다. 이는 '-로 덮히다'라는 의미를 나타내기 위해 'be covered with'라는 표현이 관용적으로 사용되는 것에 대한 학습자의 인식부족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be covered with' 대신에 '-에 의해, -로'의 의미를 가지는 전치사 'by'를 사용하여 'be covered by'로 표현하였는데, 'by' 뒤에는 단순 사물이 아닌 능동적 행위자가 위치해야 옳은 표현이 된다.

문항 20. I had my hair cut.

* I **cut** my hair.

* I cut my head.

문항 20번은 오답율이 100%에 이르는 문항으로 학습자들이 작성한 문장을 살펴보면, ‘I cut (my) hair/head.’ 라고 작성한 오류가 54%로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 이는 주어가 직접 머리를 자르는 것이 아닌데도, 우리말식대로 표현 방식을 영어 표현에 그대로 옮기는 데서 생기는 오류이다. 또한, ‘머리’를 표현하기 위해 ‘hair’ 대신에 ‘head’ 라고 쓴 잘못된 어휘 사용의 오류도 나타났다.

문항 25. The legs of the table are long.

* The table's legs are **tall**.

문항 25에서는 ‘탁자 다리가 길다.’를 표현하기 위해 형용사 ‘long’과 의미가 유사한 ‘tall’을 사용하는 오류가 나타나는데, 이는 학습자들이 무생물에게는 ‘tall’이라는 어휘를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을 모르는데 그 원인이 있다.

문항 27. He entered the room.

* He entered to the room.

* He entered in the room.

문항 27에서 나타나는 오류는 학습자가 동사 ‘enter’가 ‘reach, marry, resemble’과 같이 뒤에 전치사와 함께 쓰이지 않는 타동사라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우리말 표현대로 ‘-로’를 나타내기 위해서 전치사

‘to’ 등과 함께 사용하는데서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이상에서 다룬 영어 어휘 및 표현상의 오류의 원인을 원인별로 분류하여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34> 오류의 원인에 따른 영어 어휘 및 표현의 분류

문항	정답	오답내용	언어 간 전이	언어 내 전이
1	He takes a walk everyday.	is go mountain walk. doing walk.		○
2	I have known her for a long time.	was knowing	○	
		long time		○
3	How did you come to school?	went go		○
8	We didn't buy much food.	many		○
17	The roof is covered with snow.	is covered by		○
20	I had my hair cut.	I cut my hair/head.	○	
25	The legs of the table are long .	tall		○
27	He entered the room.	entered to/in	○	
계			33%	67%

앞서 오류의 발생 원인을 크게 언어 간 전이 및 언어 내 전이로 구분하고, 전체 영작 문항에서 추출되는 모든 문법 항목을 대상으로 하여 발생하

는 오류 형태에 따라 언어 간 전이와 언어 내 전이로 분류하고, 그 결과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오류는 모국어의 간섭 보다는 영어 자체에 대한 인식의 부족에 의해 더 큰 영향을 받는 것으로 밝혀졌다. 여기서는 영어 어휘 및 표현에 관련된 문항만을 따로 추출하여 같은 방법으로 분석하였는데, 그 결과 역시 언어 간 전이보다 언어 내 전이의 비중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언어 간 전이보다 언어내전이의 비중이 크게 나타나는 것은 연구에 참여한 피실험자들이 저학년들이 아닌 고학년이기 때문에 학습하게 되는 내용이 보다 세부적이고 복잡해진다는 점에서 어느 정도 원인을 찾을 수 있다.

5. 선행연구와의 비교

우리나라 6차 교육과정의 영어교육은 영어 교육이 너무 문법지식의 습득에 치중하여 의사소통능력을 갖추지 못한 학습자를 양산해왔다는 지적에 따라 나온 의사소통 중심의 교육과정이다. 그러나 6차 교육과정이 영어 문법 교육을 배제하는 경향이 있다는 비판과 더불어, 영어 사용의 정확성과 유창성의 검비를 중시하는 영어 교육의 흐름에 따라 7차 교육과정이 대두되었다. 7차 교육과정은 6차 교육과정과 비교하면 의사소통에 필요한 언어 형식을 제시한다는 차이점이 있다. 따라서 우리는 6차와 7차 교육과정의 학습자 각각을 대상으로 실시한 영작문 오류분석 결과를 비교하여 어떤 측면에서 차이가 발생하고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나아가 본 연구와 마찬가지로 7차 교육과정 하에서 학습한 학습자를 대상으로 시행한 연구결과 본 연구 결과의 일치여부를 확인하여 연구 결과의 신뢰도를 높일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7차 교육과정으로 학습한 고등학교 2학년 영어 학습자를 대상으로 학습자의 영어 작문에 나타난 오류를 문법항목별, 원인별로 분류하여 분석하였는데 분석결과, 문법항목별로는 동사(55%), 준동사(56%), 관

사(53%), 소유격(53%), 의문사(43%), 형용사(40%), 전치사(38%), 부사(28.4%), 접속사(28%), 어순(25%), 명사(23%)와 같이 오류율이 나타났으며, 특히 동사 및 준동사, 관사에서의 오류가 많이 나타나는 것으로 밝혀졌다. 오류의 원인은 언어 내 전이가 54%, 언어 간 전이에 의한 오류가 46%로 모국어의 간접보다는 영어 내 규칙에 대한 학습자의 인식 부족이 조금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와 마찬가지로 7차 교육과정의 학습자를 한 이정민(2007)의 연구 결과, 언어 내 전이가 57%, 언어 간 전이가 42%로 언어 내 전이가 더 큰 비율을 보이고 있으며, 각 문법 항목별 오류율에서 준동사와 관사의 오류율이 각각 72%, 70%로 가장 높게 나타나고 어순과 명사의 오류율이 가장 낮다는 결과가 본 연구 결과와 일치한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소유격의 오류율이 53%로 총 11개의 문법 항목 중 4번째로 높게 나타난 반면, 이정민(2007)의 연구에서는 총 9개의 문법 항목 가운데에 가장 오류율이 적게 나왔다. 부사의 경우, 본 연구에서는 28.4%로 비교적 낮은 오류율을 차지했지만, 이정민(2007)의 연구에서는 약 70%로 전체 문법 항목 중 세 번째로 높은 오류가 나타났다. 이는 본 연구에서 빈도 부사 등의 위치 오류를 부사 재배열의 오류가 아닌 어순의 오류로 분류하였기 때문에 이정민(2007)의 연구 결과와 차이가 발생하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6차 교육과정으로 학습한 고등학교 2학년 영어학습자를 대상으로 한 김미정(2001)의 연구에서는 동사 51%, 관사 44%, 어순 44%, 부사 36%, 전치사 24%, 준동사 21%, 명사 20%, 소유격 16%, 형용사 14%의 오류율이 발생하였으며 동사, 관사, 어순에서 특히 오류가 많이 나타나는 것으로 드러났다. 오류의 원인별 결과에서는 총 오류 1,642개 중 언어 간 전이에 의한 오류는 35.7%, 언어 내 전이에 의한 오류는 60.6% 나타났다.

본 연구 결과와 위의 김미정(2001)연구의 오류의 원인별 결과를 비교해보면, 7차 교육과정의 학습자를 대상으로 한 본 연구와 6차 교육과정의 학습

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모두 언어 간 전이보다 언어 내 전이가 더 큰 비율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6차 교육과정에서와 마찬가지로 7차 교육과정에서의 학생들도 모국어의 간섭보다는 영어 자체의 규칙에 대한 명확한 인식 부족으로 영작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또한, 두 연구의 문법항목별 분석을 비교한 결과 두 연구에서 모두 동사 및 준동사와 관사의 오류율이 높게 나타난다는 점은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6차, 7차 교육과정으로 학습한 두 집단의 학습자들 모두 동사의 사용에 가장 어려움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또한 모국어 전이가 큰 영향을 미치는 관사항목도 여전히 두 집단에서 모두 높은 오류율이 나타남을 볼 수 있다. 그러나 어순에 있어서는 7차 교육과정의 학습자들이 6차 교육과정의 학습자들보다 더 낮은 오류율을 보이는데 이것은 7차 교육과정에서 ‘의사소통에 필요한 언어형식’이 문장단위로 제시되는 데서 원인을 찾을 수 있겠다. 이처럼 7차 교육과정으로 학습한 학습자들은 영어의 중요한 단위인 ‘어순’에서의 오류는 감소하였지만, 여전히 동사 및 준동사 등 세부적인 문법사항에 대해서는 어려움을 가지고 있으므로 이와 같은 점을 고려해 학생들이 세부적 문법에 대해 정확하게 사용하여 의사소통할 수 있도록 하는 효과적인 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7차 교육과정 하에 학습한 고등학교 2학년 영어 학습자를 대상으로 학습자의 영어 작문에 나타난 오류를 문법항목별, 원인별, 어휘 및 표현별로 분류하여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표집된 오류 총 1,250문항 중 오류는 998개인 79.84%로 높게 나타났다. 오류를 문법 항목 유형별로 분석한 결과, 동사-준동사-관사-소유격-의문사-형용사-전치사-부사-접속사-어순-명사의 순으로 오류가 많이 발생하였으며 동사, 준동사 및 관사의 오류율이 특히 높게 나타났다.

오류 형태는 문법 항목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보편적으로 생략의 오류가 가장 많이 발견되었고, 그 밖에 다른 어휘로 대치하거나 재배열하는 오류 형태도 나타났다. 이를 통해서 학습자들이 자신들 나름대로의 언어지식을 사용하여 의미를 구성하려고 시도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둘째, 오류의 원인별 분석결과, 언어 내 전이가 54%, 언어 간 전이에 의한 오류가 46%로 모국어의 간섭보다는 영어 내 규칙에 대한 학습자의 인식 부족이 조금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언어 내 전이에서는 동사와 더불어 동명사, to부정사, 분사 등의 준동사의 오류율이 두드러지는데, 이것은 학습자들이 동사 및 준동사와 같이 다소 복잡한 규칙이 사용되는 문법항목의 규칙을 올바르게 인식하고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낸다. 언어 간 간섭에서는 우리말에 존재하지 않는 관사의 생략오류가 41.64%로 가장 많이 나타났다.

셋째, 어휘 및 표현별 분석결과, 항목 총 500개 가운데, 오류는 240개로 약 50%를 차지했다. 다수의 학습자들이 영어 어휘 쓰임에 대해 정확히 모르고 있거나, 우리말과 영어간의 표현방식의 차이를 인식하지 못하고 우리말의 의미 표현 관습대로 영어를 표현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어휘 및 표

현별 오류의 원인 판단을 위해 언어 내 전이와 언어 간 전이에 의한 오류로 구분하여 분석한 결과, 언어 내 전이에 의한 오류율이 67%로 언어 간 전이에 의한 오류보다 더 많이 나타났다. 이를 통해 영어 표현에 대한 학습자의 어휘 및 표현 자체에 대한 인식 부족이 오류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발견되었다.

마지막으로, 이전의 7차 교육과정 하에 학습한 학습자 대상의 오류분석연구와 본 연구를 비교한 결과, 동사와 관사에서 높은 오류가 나타나고 명사와 어순에서는 낮은 오류율을 보인다는 결과가 공통으로 도출되었다. 또한, 언어 내 전이에 의한 오류가 언어 간 전이에 의한 오류보다 더 크게 나타났다. 한편, 본 연구를 지난 6차 교육과정의 학습자의 오류분석연구와 비교 분석한 결과, 동사, 준동사 및 관사 항목의 오류는 여전히 높게 나타난 반면, 어순의 오류는 줄어든 것으로 밝혀졌다. 영어의 전체적 의미에 큰 영향을 끼치는 어순의 오류가 줄어들었다는 점은 긍정적이지만, 여전히 학습자가 보다 복잡하고 세부적인 문법 항목의 학습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와 같이 7차 교육과정으로 학습하는 학습자들의 문법 오류를 분석한 결과, 학생들은 간단한 문장을 영작하는데 있어서도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영작문의 정확성 또한 매우 떨어짐을 발견하였다.

과거 교사의 일방적인 문법 설명을 중심으로 하여 학습자의 규칙 암기와 연습을 통해 이루어진 명시적 교수는 의사소통 중심의 교수법을 지향하기 시작한 6차 교육과정에서 비판을 받았다. 그러나 최근 명시적 교수법과 암시적 교수법을 통해 한국 고등학생의 영어문법 학습 효과에 대해 연구한 김경진(2006)에 의하면 이러한 명시적 교수에 의한 문법 학습이, 의사소통 과정에서 학습자가 스스로 규칙을 유추하고 도출함으로써 이루어지는 암시적 교수보다 더 효과적인 것으로 밝혀졌다. 따라서 현시점에서 문법 교육에 있어서 이러한 명시적 교수방법을 적극 활용해야 할 필요가 있다.

위의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제언할 수 있다. 첫째, 유창성과

더불어 정확성을 함께 배양할 수 있는 효과적인 의사소통기반 교수법을 연구 및 고안하여 체계적으로 교실에 적용할 필요가 있다. 둘째, 영어 학습자의 교수 내용의 구성에 있어서 습득순서 및 난이도를 고려하여 동사, 준동사와 같이 학습자가 어려워하거나 복잡한 규칙이 적용되는 문법 항목은 학습자에게 충분한 입력과 산출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셋째, 숙어와 같은 어휘 및 표현상의 오류 또한 대다수가 영어 자체에 대한 인식 부족에 기인한다. 따라서 숙어 등의 영어 표현 및 학습자가 특히 어려움을 느끼는 문법 항목의 학습은 앞서 언급한 명시적 교수법을 사용하여 교사에 의한 보다 명시적이고 구체적인 언어 입력 제공과 이에 대한 학습자의 암기 및 산출 연습의 연계가 이루어질 때 효과적으로 학습될 수 있을 것이다.

넷째, 학습자들의 오류에서 우리말식으로 영어를 표현하는 오류가 많이 발생하였으므로, 영어 쓰기 활동에 있어서 우리말을 영어로 옮길 때 발생하는 언어 구조의 차이에 의한 어려움을 줄이기 위한 전략 학습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와 같이 학습자의 오류 분석을 토대로 학습자의 어려움을 예측하고, 오류에 대한 적절한 오류 수정방안을 연구하여 상황에 맞게 지도할 필요가 있다. 또한, 교사는 학습자들의 오류가 언어를 습득해가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현상임을 염두에 두고 오류에 대한 적절한 피드백을 지속적으로 제공하여 학습자들의 실력 향상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 교과서 >

- 김성곤 외. 2004. *High School English*. 서울 : (주)두산.
- 김충배 외. 2001. *High School English* 1. 2. 3. (주)중앙교육진흥연구소.
- 신정현 외. 2004. *High School English*. 서울 : (주)시사영어사.
- 이병민 외. 2004. *High School English*. 서울 : (주)천재교육.
- 장영희 외. 2001. *Middle School English* 1. 2. 3. (주)두산동아.
- 교육부. 1997a. *중학교 교육과정해설(V)*.
- 교육부. 1997c. *외국어과 교육과정(I)*.
- 교육부. 1997d. *고등학교 교육과정해설 - 11외국어(영어)*.
- 김경진. 2006. *명시적 교수법과 암시적 교수법을 통한 한국 고등학생들의 영어 문법 학습 효과*. 아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미정. 2001. *오류분석을 통한 영어 쓰기 지도*. 동아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경자, 장미경, 오은진. 2001. 제 2 언어습득. 박이정.
- 박명환. 2002. *고등학생의 영작문에 나타난 오류분석*. 충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박지영. 2004. *통제작문을 통한 오류분석 연구*. 단국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서고은. 2006. *영작문에서의 오류 분석*. 성신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정민. 2006. *영작문 오류분석을 통한 학습자들의 문법 인지도 분석*. 성신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재홍. 2005. *고등학교 학생들의 영작문 오류분석*. 아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윤애선. 2005. *한국 영어 교육의 변천사 : 고찰과 시사*.
홍익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정재우. 2002. *고등학교 영어 쓰기 과정에서 오류분석*.
경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한상만. 2006. *고등학교 학생들의 영작문에 나타난 오류분석*.
아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황종배. 2004. *제 2언어 습득론개관*. 경진문화사.
- Brown, H. 1980. *The optimal distance model of second language acquisition*. TESOL Quarterly 11: 365-372.
- Corder, S. 1967. *The significance of learner's errors*.
International Review of Applied Linguistics.
- Douglas Brown. H. 2007. *Principles of Language Learning and Teaching*. London : Longman.
- Ellis, R. 1997. *SLA Research and Language Teaching*. Oxford :
Oxford University Press.
- Fries, C. 1945. *Teaching and Learning English as a Foreign Language*. Ann Arbor: University of Michigan Press.
- Gass, S., & Selinker, L. 2001. *Second language acquisition : An introductory Course (2nd)*. Hillsdale, NJ :
Lawrence Erlbaum Associates. pp.72-75
- Lado, R. 1957. *Linguistics across cultures*. Ann Arbor : The
University of Michigan Press.
- Larsen-Freeman, D & M. Long. 1991. *An Introduction to Second Language Acquisition Research*. London : Longman.

- Littlewood, W. 1984. *Foreign and Second Language Learning*.
Cambridge University Press.
- Nemser, W. 1971. Approximative Systems of Foreign Language Learners.
International Review of Applied Linguistics 9 : 115-23
- Pastys M. Lightbown & Nina Spada. 2006. *How Languages are Learned*:
Oxford University Press.
- Richards, J, 1971. Error Analysis and Second Language Strategies.
Language Science 17. 12-22.
- Selinker, L. 1972. Interlanguage. *International Review of Applied
Linguistics* 10. 129-31.

ABSTRACT

An Analysis of Learner's Errors in English Composition

Kim, Eun-Ju.

Department of English Education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Sungshin Women's University

The Primary goal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and analyze errors collected from Korean high school students' English writing and to suggest more efficient ways for teaching English. In order to achieve this goal, first of all, learner language and error analysis were studied by investigating various scholars' theories. In addition, the definitions and sources of errors were considered.

Second, 50 second-grade students were chosen as the subjects of this study. The students were given 30 simple Korean sentences and were asked to translate them into English. The collected errors were classified into 11 grammatical categories. The causes of errors were classified into two categories: inter-lingual transfer, intra-lingual transfer. Third, 8 sentences related to idiomatic expressions were analyzed in detail. Fourth, This study compares the rate of students' grammatical errors that have occurred under the 7th Korean curriculum with those under the 6th Korean curriculum.

The result of the analysis is as follows : First, the rate of the whole sentence errors was 80%. The highest rate of errors was recorded in the use of verbs. The ranking is as follows : verbs, gerunds and infinitives, articles, the possessives, interrogatives, adjectives, prepositions, adverbs, connectives, word order, nouns. Of the causes for the errors, intra-lingual transfer(54%) were more prevalent than inter-lingual transfer(46%).

Second, The percentage of errors for idiomatic expressions was about 50%. This result indicates that many learners have not perfectly understood English expressions. Finally, in the result of the comparison in the change of curriculum, the error rate of verbs and articles still remained to be among the highest, with the improvement having occurred in word-order use. Based on these results, the effective teaching methods for cultivating communicative skills focused both on accuracy and fluency should be sought.

[부록]

학생 설문지

안녕하십니까? 저는 성신여대 교육대학원에 영어교육을 전공하고 있는 학생입니다. 본 문제지는 현재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여러분이 문법에 어떤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지를 파악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에 대한 해결책을 모색해보기 위한 자료로 사용될 것입니다. 설문 내용은 익명으로 작성되며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소중한 정보는 외부로의 유출 없이 본 연구에만 사용될 것을 약속드립니다.

시험기간이라 바쁘시겠지만 끝까지 성심성의껏 작성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

◇ 다음의 문장들을 아시는 대로 영어로 옮겨주세요. (총 30문항)

1. 그는 매일 산책을 한다.
:
2. 나는 그녀를 오랫동안 알아왔다.
:
3. 너는 학교에 어떻게 왔니??
:
4. 그녀는 아팠던 것이 틀림없어.
:
5. 나는 그 아이들이 노래하는 것을 들었다.
:
6. 우리는 수영장에서 수영하는 것을 즐긴다.
:
7. 그 빌딩은 1880년도에 지어졌다.
:

8. 우리는 음식을 많이 사지 않았다.
:
9. 차가 자전거보다 훨씬 비싸다.
:
10. 내가 우리 가족에서 제일 크다.
:
11. 나는 그녀만큼 빨리 달릴 수 있다.
:
12. 이것은 내가 어제 산 그 책이다.
:
13. 나는 그가 어디 사는지 모른다.
:
14. 나에게 피자 만드는 법을 말해줘.
:
15. 그녀는 화가 났고 나도 또한 그랬다.
:
16. 그가 나에게 선물을 주었다.
:
17. 그 지붕은 눈으로 덮혀 있다.
:
18. 나는 어제 죽어가는 호랑이를 보았다.
:
19. 나는 부상당한 한 남자를 도와주었다.
:
20. 나 머리 잘랐어.
:
21. 그는 항상 학교에 늦게 온다.
:
22. 그는 행복해 보인다.
:
23. 그는 나를 보러 왔다.
:

24. 나는 그가 미국에서 왔다는 것을 몰랐다.

:

25. 그 테이블의 다리들은 길다.

:

26. 나 마실 차가운 것 좀 주세요.

:

27. 그는 방안으로 들어갔다.

:

28. 나는 18살 소녀이다.

:

29. 여기가 그가 태어난 장소이다.

:

30. 모든 사람은 그 자신만의 이름을 가지고 있다.

: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